

# 2020 국별 진출전략

## 몽골



<b>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b> .....	<b>3</b>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주요 경제지표 .....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
가. 몽골 총선에 따른 정치경제 변화 .....	4
나. IMF 체제 후 몽골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 여부 .....	5
다. 13년 만에 개정된 조세법에 따른 국내외 기업들의 변화 .....	6
라. 한-몽 수교 30주년을으로 양국 간 교류확대 .....	7
<b>II. 비즈니스 환경 분석</b> .....	<b>8</b>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8
가. 정치 환경 .....	8
나. 경제 환경 .....	10
다. 산업 환경 .....	12
라. 정책·규제 환경 .....	16
2. 시장 분석 .....	18
가. 시장 특성 .....	18
나. 교역 .....	18
다. 투자 .....	21
라. 서비스 산업 진출 성공 사례 .....	22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	24
가. 교역 .....	24
나. 투자 .....	25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27
<b>III. 진출전략</b> .....	<b>29</b>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29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30
3. 한-몽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36
4. 진출 시 유의사항 .....	39
<b>첨 부</b>	
1. 수출유망품목(상품) .....	40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41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42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43
<b>부 록</b>	
對몽골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	44



#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1 개요

### 가. 시장 전망

#### 2020년 몽골 경제성장률, 현상유지 또는 2019년 대비 소폭 하락 전망

- 2020년 몽골 경제성장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하락해 6.1%~6.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5~2016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던 몽골 경제는 2017년부터 서서히 회복 중이며, 2020년에는 6%대의 경제 성장 기대
  - IMF는 2020년 몽골 경제성장률을 6.2%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 기관별 GDP 성장률 전망: 6.2%(IMF), 6.3%(World Bank), 6.1%(ADB), 6.5%(몽골 재무부)
  -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7.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부문별로 보면 산업 및 건설(9.3%), 광산 채굴(13%), 서비스(7.4%), 도소매(10.4%) 등 부문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됨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2,868	2,996	3,058	3,120	3,178	3,238	3,296	3,354
명목 GDP*	십억 달러	12,293	12,227	11,750	11,187	11,135	13,006	13,225	13,825
1인당 명목GDP	달러	3,988	4,643	4,218	3,854	3,780	4,009	4,012	4,123
실질성장률	%	12.3	7.9	2.4	1.2	5.3	6.9	6.6	6.2
실업률	%	8.2	7.9	8.3	8.6	9.1	6.9	7.8	6.6
소비자물가상승률	%	14.3	12.8	6.6	0.7	4.3	6.8	8.5	7.5
재정수지(GDP대비)	%	-27.3	-11.5	-4.0	-4.07	-4.4	3.7	n/a	n/a
총수출	백만 달러	4,385	5,774	4,669	4,916	6,201	7,012	7,685	8,507
(對韓 수출)	"	12.3	13.5	66.6	8.5	11.6	21.2	22.6	25.2
총수입	"	6,738	5,237	3,797	3,358	4,337	5,875	6,462	7,153
(對韓 수입)	"	467.7	352.5	258.7	197.9	197.7	262.3	288.5	302.1
무역수지	백만 달러	-2,354	539	872	1,558	1,863	1,137	900	1,354
경상수지	"	-5,380	-1,934	-948.5	-669.7	-1,078	-441	-393	n/a
환율(연평균)	MNT/US\$	1,359	1,818	1,971	2,145	2,440	2,472	2,660	2,75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0.65	1.07	0.11	0.14	0.49	0.37	0.45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42.72	3.37	0.94	-40.72	14.46	21.37	18.7	n/a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IMF, 몽골 중앙은행, 몽골 통계청, \*는 UNCTAD

##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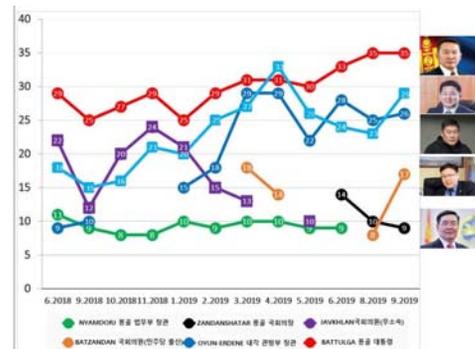
- ※ 2020년 몽골 총선 실시에 따른 정치·경제적 영향으로 비즈니스 환경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 이를 감안할 필요 있음
- ※ IMF 관리체제가 2020년 종료되고, 2021년부터 부채 상환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 긴축재정이 경제 회복에 변수로 작용
- ※ 13년 만에 개정된 조세법 발효로 외국기업 진출 확대 및 FDI 증가에 긍정적 작용
- ※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정치·외교·경제적 이벤트 효과로 한·몽 경제 교역 확대 가능성

### 가. 몽골 총선에 따른 정치·경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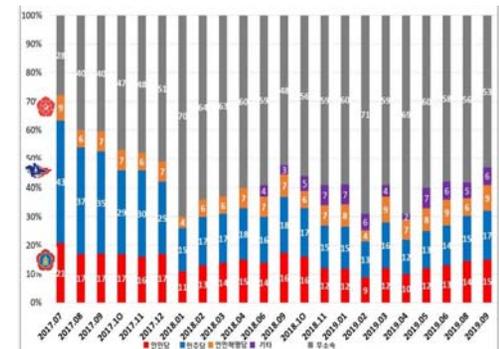
#### 4년 주기로 교체되는 몽골 정부, 2020년 총선 결과에 따라 많은 변화 예상

- 2020년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인민당의 정권 교체 여부에 관심 집중
  - 이원집정부제 성격의 몽골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 당시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이 참패하고 전체의석(76석)의 90%(65석)를 인민당이 석권하면서 정권 교체
  - 과거 몽골 총선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4년 주기로 인민당과 민주당이 교대로 정권을 잡고 있으며, 2020년 총선에서 현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 \* 2008년 인민당 → 2012년 민주당 → 2016년 인민당
  - 또한, 컨설팅 회사인 MEC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 대통령인 바툴가 대통령(민주당)의 지지율이 현재 집권당인 인민당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20년 총선 결과가 기대됨

주요 정치인 지지율 현황



주요 당 지지율 현황



자료 : 현지 컨설팅사 MEC/www.mec.mn/

## 나.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후 몽골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 여부

### 2017년 2월 몽골 정부는 과도한 대외 부채 상환 능력 부재로 IMF 체제 수용

- 2014년 이래 대내외 환경 악화로 경기하강 지속, 급기야 IMF 체제 돌입
  - 2011년 최대 17%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14년 7.8%, 2015년 2.3%, 2016년 1%로 폭락
  - 경기 침체 주원인은 FDI의 급격한 감소, 정부재정 악화로 부채 급증, 국제 광물 수요 하락 및 급격한 환율 상승 등
- 2017년~2020년 3년간 IMF의 ‘확대금융제도(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을 통해 총 4억 3,430만 달러를 상환 기간 10년, 2% 이하의 이자율로 지원받음
  - IMF 지원금과 별도로 세계은행 6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 9억 달러, 일본 8.5억 달러, 한국 7억 달러 등 약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고, 중국과는 150억 위안(약 22억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를 3년으로 연장
    - \* 몽골이 IMF 구제 금융을 받는 것은 1990년 이후 여섯 번째
  - IMF는 5차 지원금을 2018년 11월에 3,622만 달러를 중앙은행으로 송금해 총 2억 1,733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6차 지원금을 위한 일부 요청사항이 실행되지 않아 6차 지원금 송금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상태
    - \* IMF에서 몽골 상업은행들의 자체 자본금을 확대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회계 감사 실시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아 6차 지원금 지원 무기한 연장

### IMF 관리체제 수용 이후 몽골 경제는 안정적 성장세 시현

- IMF 체제가 끝나는 2020년까지 몽골 경제 안정적 성장 전망
  - 몽골은 2011년 최대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해 2016년에는 1%대를 기록
    - \* '12년 12.3%, '13년 11.6%, '14년 7.9%, '15년 2.4%, '16년 1.2%
  - IMF 체제를 수용한 2017년에는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2018년 6.9%, 2019년 상반기 기준 7.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IMF 체제 아래 몽골 경제 안정세
  - 또한, 2018년에는 몽골 재정수입 증가로 8년 만에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대외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몽골 경제 양호한 편

### 2019년 상반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55%대로 떨어져 IMF 수용 당시(65.7%)에 비해 정부의 대외 부채 상환 능력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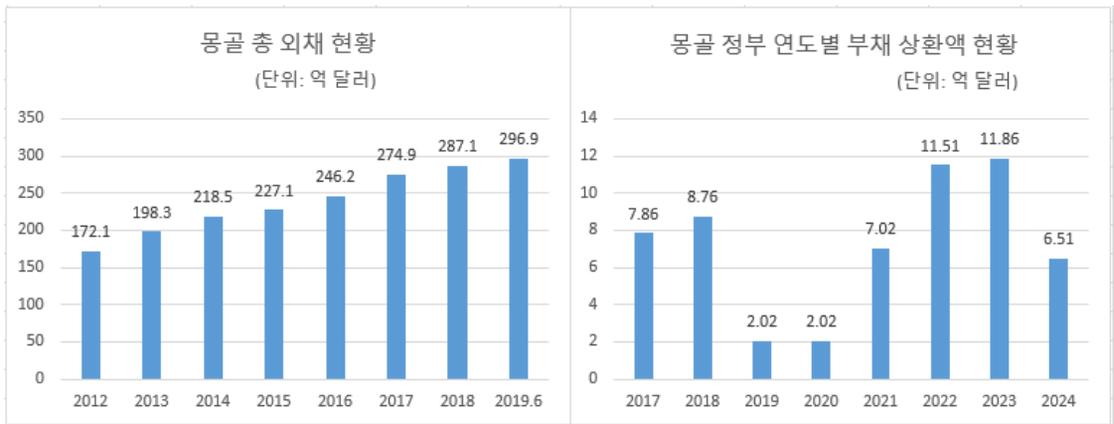
- IMF에서는 몽골 정부 부채가 2022년에 가서야 GDP의 50%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으나, 2019년 상반기 GDP의 55.7%에 도달

- IMF 관리체제 수용 당시인 2017년 상반기 기준 대외 부채는 GDP의 246%에 달했으며, 정부 부채는 60.1억 불로 GDP의 65.7%에 달한 반면, 2019년 상반기 정부 부채는 GDP의 55.7%로 하락

\* 대외 부채 : 몽골 정부 72.4억 불, 중앙은행 20.3억 불, 상업은행 22.4억 불, 기업 간 직접투자 96.6억 불, 기타 85.1억 불

- 몽골 정부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거액의 부채 상환 예정
  - 몽골의 총 외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2020년에는 국채 상환액수가 소액이나 2021년부터 상환액수가 커져 몽골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

### 몽골 외채 및 부채 현황



자료 : 몽골 중앙은행

## 다. 13년 만에 개정한 조세법에 따른 국내외 기업들의 변화

### 2020년 1월 1일부로 신(新) 조세법 발효 예정

- 몽골 국회는 법인세율 과세대상 매출규모 확대, 납세자 권익강화를 골자로 2019년 6월에 조세법을 대폭 개정
  - 몽골 정부는 2006년 이후 조세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이번 법안 내용은 대폭 확대되어, 분쟁 해결 및 납세자로 검사 강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금징수 강화에 따른 내용이 확대

### 과세대상 법인세율 매출 규모를 확대 등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법인세법 개정

- 과세대상 법인세율의 매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정부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감소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추정
  - 기존에는 기업의 매출 규모가 30억 투그릭까지 1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은 25%였으나, 10% 법인세 부과 매출액을 60억 투그릭으로 확대

- 또한, 이번 법인세법 개정은 몽골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대상 매출규모를 높여 매출액이 많은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 해주는 법안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몽골 정부의 노력으로 판단

## 라. 한-몽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정부 간 교류 확대

###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외교 관계 격상 기대

- 한국과 몽골은 2011년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 증진
  - 2011년 기존의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높임으로써 외교 관계 증진
  - 2019년 3월 이낙연 국무총리 방몽 시 2020년 수교 30주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협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
    - \* 몽골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7억 달러 규모의 EDCF 자금 지원을 약속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
- 한-몽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활발한 경제협력 기대
  - 양국 간 고위직 방문과 함께 대기오염 방지대책, 에너지협력, 신북방정책, 양국 간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가능성 다대



##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2020년 총선 결과에 따라 비즈니스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감안한 정부 프로젝트 추진 필요
- ※ 2019년과 2020년에는 6%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예상되며, 환율 안정화 및 대외무역 확대 전망
- ※ 몽골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으로 광업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 및 경제 다각화 예상

#### 가. 정치 환경

##### 2020년 6월 총선, 2021년 6월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 진행 예정

- 현 다수당인 인민당(76석 중 65석)은 2018년에 ‘관직매매’, ‘중소기업 지원기금’ 관련 사건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최근(2019년 9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민주당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파악
  - 인민당은 2016년 총선에서 “빈곤퇴치, 경제침체 탈피, 외채 상환 계획, 부정부패 극복방안, 국민 모두 평등한 권력을 가진 부강한 몽골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 75석 중 65석 차지
-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 2회 연속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 2017년 대선에서 애국주의와 자원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몽골 우선주의’를 내건 민주당(야당) 출신 바툴가(Battulga) 대통령 당선
  - 법과 인권 존중, 자유와 정의, 공존과 화합 중시, 광물 채굴 산업 수익의 공평한 분배, 관직매매 단절 및 부패척결, 경제 재건과 수출 확대 및 다양화, 자연생태계 보호를 중심으로 애국주의와 자원민족주의를 내걸어 경제난의 해결사로 이미지화한 것이 당선 요인
  - 현 대통령 바툴가는 야당(민주당) 출신이고, 총리 후렐수흐는 여당(인민당) 소속이나 같은 애국주의와 자원민족주의 성향으로 대통령과 정부 간 대체적으로 원활한 관계 유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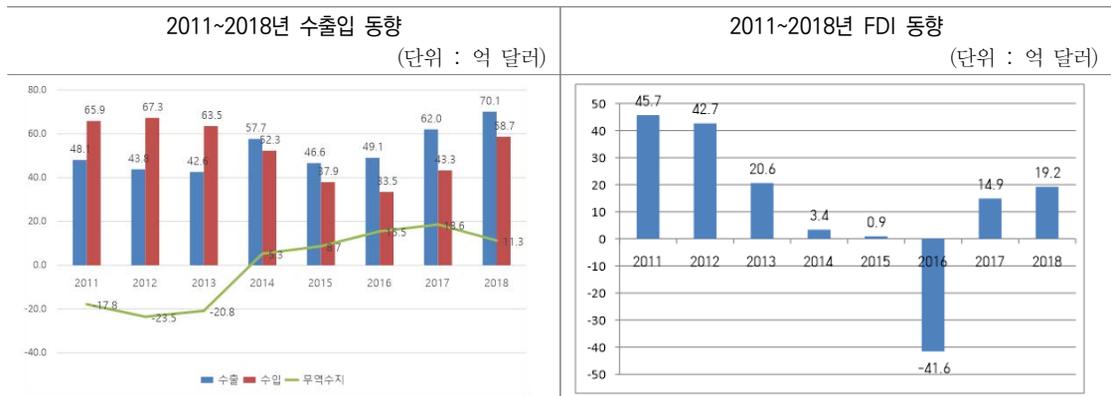


## 나. 경제 환경

### 몽골 경제 동향 및 전망

- 몽골은 2011년 최대 1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다 2017년에 5.1%, 2018년에 6.9%로 회복
  - FDI의 급격한 감소, 정부재정 악화로 인한 부채 급증, 국제 광물가격 하락, 투그릭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를 벗어나기 위해 2017년 5월, IMF 체제 수용으로 부채 상환, 외환보유고 증가, 재정수지 적자, 투그릭화 가치 하락 둔화 등으로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8.6%로 IMF 전망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임
  - 몽골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경제성장률은 6%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18년은 대외무역·FDI·재정수지 등 경제 지표들이 최고치를 기록한 역사적인 해로 평가
  - 2015년과 2016년에 광물 가격 상승, 경제 불안정 등으로 교역과 투자가 다소 주춤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FDI는 지속 증가세
  - 2018년의 교역량은 12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으며, FDI 규모는 1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8% 증가했고, 무역수지도 11.3억 달러로 5년 연속 흑자로 나타남

몽골 2011~2018년 대외 경제 활동 동향



자료 : 몽골 중앙은행,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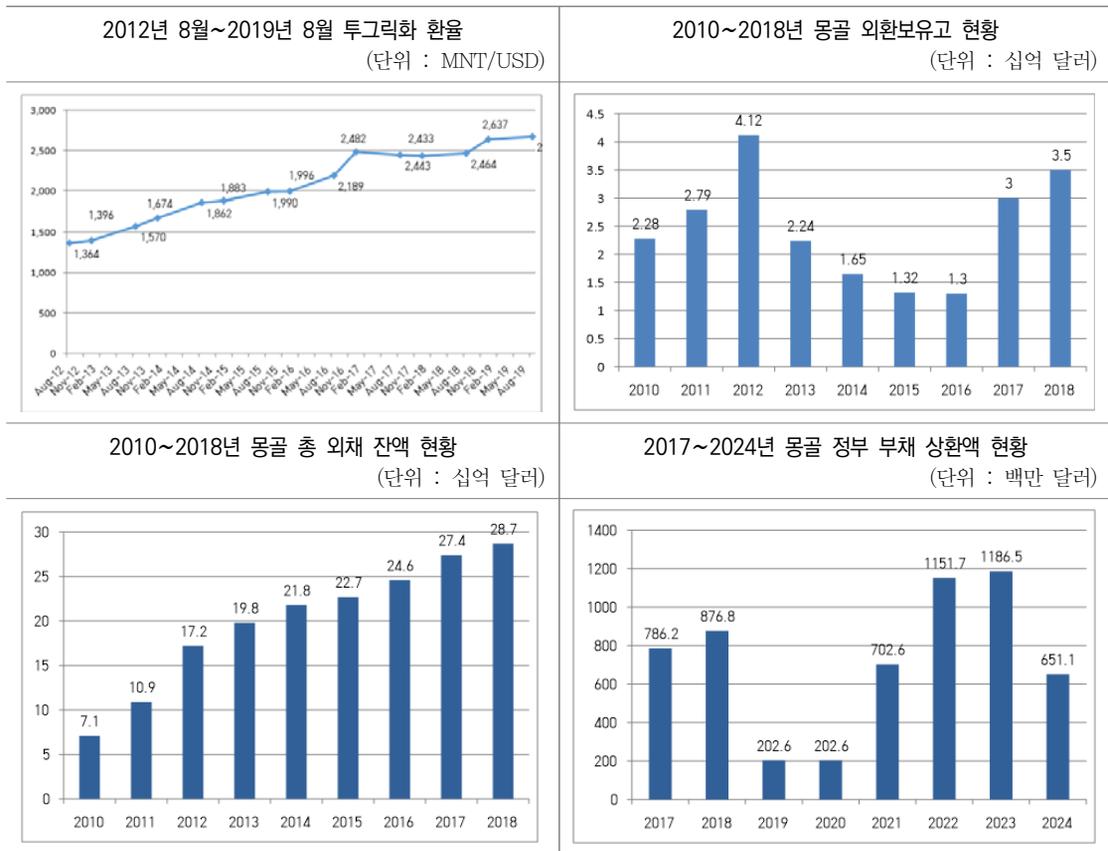
- 2019년 8월 기준 몽골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더 많이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 기록
  - 2019년 8월 수출은 53.8억 달러(15%↑), 수입은 40.9억 달러(7.6%↑)로 대외무역 증가세

### 몽골 주요 거시경제 지표 및 경제 전망

- IMF 관리체제가 끝나는 2020년까지 몽골 경제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

- IMF 체제 수용 당시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미국 달러 대 투그릭화 환율 2,400~2,600대 유지
- 외환보유고의 경우 2016년에 13억 달러로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으나, 2017년에 30억 달러, 2018년 35.5억 달러, 2019년 6월 기준 41억 달러로 지속 상승세를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에 5.9%p 급락해 0.7%로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급등하여 2018년에 6.8%, 2019년 상반기에 8.9% 기록
- 몽골은 대외 부채 상환능력 부재로 인해 IMF 관리체제로 들어갔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대외 부채 상환액 규모가 작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평가

몽골 주요 거시경제 지표



자료 : 몽골 중앙은행, 통계청

## 다. 산업 환경

### 산업 개요

- 광업 중심에서 농·목축업 및 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로 변화 추진 중
  - 2019년 7월 기준 산업생산에 따르면, 광업 74.4%, 제조업 20.4%, 전기 및 에너지 생산은 5.2%를 각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GDP 기여율은 광업이 23.5%, 제조업이 7.5%, 전기 및 에너지 공급업이 2.2% 등 광업은 몽골 경제의 주축임
  - 몽골 정부는 ‘국가개발계획 2045’ 등 장기 발전 계획에 광업 의존형 경제 구조 탈피, 경제의 다각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중

### (광업) 몽골은 3C(Coal, Copper, China) 및 FDI(외국인 직접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

-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광물자원은 총수출의 약 80%(구리·석탄·원유·철강 등 광물 수출이 약 70% 이상)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광업 부문은 몽골 경제 성장의 원동력
    - 광물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원자재 가격에 크게 좌우되며, 2011년부터 주요 광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몽골 수출과 FDI, 재정 수입 등 대폭 감소
- \* 몽골 보유 광물은 총 80여 종으로 석탄, 동, 형석, 금, 철, 납, 몰리브덴, 은, 텅스텐, 우라늄 및 아연 등 광물이 풍부

### 몽골 전략광산 위치



자료 : 주한 몽골대사관

- 2019년 7월 기준 광산업이 GDP의 23%, 산업생산의 74%, 전체 수출의 84% 차지
  - 전체 광물 수출에서 철광석·구리정광·석탄·원유 등 4대 광물이 91%를 차지

### 최근 5년간 광산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GDP 대비 광업 점유율(%)	17	17.6	20.7	24.1	24.3
산업생산 중 비중(%)	64.4	55.1	55.6	57.7	57.4
광물 전체 수출액	4,791.5	3,678.2	3,484	4,933.7	6,070.3

자료 : 몽골 통계청

- 2016년 이후 신정부의 자원민족주의 부각, 채굴권 압수, 주요 투자자(Rio Tinto)와의 계약 분쟁, 가격 하락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탈하면서 광업이 침체
  - 또한, 중국과 인접한 내륙 국가로서 자원수출과 교역 등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몽골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음
  - 향후 광산업 회복 여부는 국제 자원가격 상승과 함께 몽골 최대 광산인 OT와 TT의 개발 확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

### (건설업) 건설시장은 몽골 전체 GDP의 3.6%에 상당하는 수준

- 최근 10년간 건설시장 성장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에 최저치(862억 투그릭)를 기록한 이후 2018년에는 최고 성장세 기록
  - 2018년 몽골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3% 성장한 4.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

### 몽골 건설시장 동향

(단위 : 십억 투그릭)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건설시장	989.0	978.0	949.1	1,029.8	1,164.2
전년 대비 실질 성장률(%)	-4.3	-0.2	-4.9	11.4	2.4
GDP 대비 건설시장 점유율(%)	4.4	4.2	4.0	3.7	3.6

자료 : 몽골 건설부

- 몽골은 필요한 건축자재의 60%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40%를 수입하고 있으며, 건축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일부 수입산 전자재 관세율 인상 조치함
  - \* 시멘트, 콘크리트, 단열재, 목재, 플라스틱으로 만든 문, 창, 틀, 목재 가국 등 품목에 대해 5%~25% 관세 인상
- 몽골 정부는 빈곤퇴치 및 대기오염 감소 목적으로 게르촌 개발, 신도시 개발 등 주택 및 도시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

- 2018년 기준 수도 울란바토르에 전체 인구의 45%(약 145만 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60%는 중앙난방과 연결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나머지 40%(58만)는 급수, 전력, 난방 등 인프라가 미비한 게르촌에 거주
- 이 같은 게르촌 주거 시민들을 위해 민간 협력 게르촌 재개발 사업과 울란바토르시 인근 야르막(Yarmag) 지역을 신도시로 선정해 개발 중이며, 여기에 한국 정부 ODA 사업으로 50만 호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 중

**☛ (도소매업) 몽골은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공산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소매업의 GDP 기여율은 16.5%**

- 2018년 기준 도소매업 매출액은 21조 6,393억(약 87억 달러) 투그릭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해, 3년 연속 증가세 유지
- 몽골 최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13년 이후의 현지화 가치 하락 및 경기 침체로 도소매 유통업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었으나, 2017년 들어 IMF 구제금융 도입 및 외국계 유통기업 진출로 도소매업이 회복

**최근 5년간 도소매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GDP 대비 도소매업 점유율(%)	16.9	16.4	16.1	15.8	16.5
매출액	9,340.2	8,979.5	7,819.9	8,196.9	8,757.3

자료 : 몽골 통계청

- 생활용품 및 식료품 도소매 프랜차이즈 진출에 따른 도소매업 확대 전망
- 몽골 유통업계에 2016년까지 외국계 프랜차이즈 진출 사례가 없었으나 2016년에 한국계 E-mart, 러시아계 Absolute 진출로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했는데, 2016년 외국계 프랜차이즈 진출 이후 도소매업 매출이 급증
  - \* 2016년 매출액 16조 7,736억 투그릭에서 2018년 21조 6,393억 투그릭으로 급성장
- 도소매업 프랜차이즈로는 대형마트로 한국의 E-mart, 러시아의 Absolute, 편의점으로 한국의 CU, 미국의 Circle K, 소비자 유통점으로 일본의 Daiso, Miniso 등이 진출했으며, 이 외에도 한국 화장품 프랜차이즈인 The Face shop, Missha, Tony Moly, Skinfood, Nature Republic 등이, 의류 브랜드로는 On&On, 글로벌 패션 브랜드 United Colors of Benetton, Mango, Next, Terranova, Calliope 등이 진출

## 유통업계 프랜차이즈 진출 현황

브랜드명	로고	설립연도	점포수	기타 정보
E MART		2016	3	몽골 대기업 ALTAI HOLDINGP 사의 자회사인 Sky Hypermarket사가 운영 중이며, 한국 (주)이마트는 10%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
ABSOLUTE		2016	1	러시아인 투자 기업이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운영 중이나 경쟁력이 약함
DAISO		2017	5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운영
MINISO		2016	12	HI GREEN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권으로 운영하고 있음
CU		2018	31	몽골 PREMIUM GROUP사가 기존에 Central Express라는 몽골 최초의 체인 편의점을 운영하다 Central Express CVS(100% 국내 투자기업) 자회사를 통해 CU를 마스터 프랜차이즈권으로 운영 중임. 울란바토르시에 단기간 내 점포수를 늘려 소비자와 가까워진 점과 한국산 제품 판매로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음
CIRCLE K		2017	20	몽골의 최초 체인 해외 편의점이며, Circle Chain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권으로 직접 운영 중

자료 : KOTRA 울란바토르무역관 자체 조사

### (제약) 1억 달러 규모의 거대 수입 시장

- 몽골은 높은 질병 감염률에도 불구하고, 자국 제약사 경쟁력이 저조해 전체 의약품 수요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 중이며, 2018년 기준 총 9,600만 달러 의약품 수입
  - 몽골 질병 발생 빈도를 보면, 호흡, 소화, 심혈계통의 질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망 원인으로 심장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이 높은 것으로 집계
  - 현재 34개 제약사가 의약품 및 의료 기구를 생산 중이며, 대규모 제약사로는 Monos, Tavin Us, Tsombo, Nakhia, IVCO 등 존재하나 각 제약사가 제조하는 약품 종류가 중복되지 않아 국내 경쟁력이 낮은 편
- 한국은 의약품 등록 수 기준(8.6%)으로 3위, 전체 의약품 수입액 점유율 기준(6.9%)으로 4위 등 몽골 의약품 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이 높음
  - 몽골에는 현재 59개국 5,916개 약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수입 의약품은 70%(4,153개) 차지

- 2018년 기준 몽골 수입 의약품 시장규모는 9,6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슬로베니아, 독일, 인도 다음으로 한국인데, 한국의 대(對)몽골 의약품 수출은 2018년 급성장하여 전년 대비 44.3% 증가함으로써 7위에서 4위로 상승

### (화장품) 한류 영향 및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화장품 수요 급증

- 젊은 인구 비중(35세 이하 젊은 68%), 청년·여성층의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화장품(HScode 3304)의 2019년 8월 기준 수입액은 1,29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한류 영향 및 한국화장품 유통업계 진출 증가로 대(對)한국 수입이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 언더밸류 통관, EMS 및 카고(Cargo)사 수입 건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수입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
- 몽골은 인구 323만 명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지만, 다채로운 브랜드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경쟁 시장
  - 고가 제품군은 SHISEIDO, ESTEE LAUDER, L'OCCITANE, CHANEL, DIOR, CLARINS, YVES ROCHER 등이며, 중저가 제품군은 AVON, MARYKAY, ORIFLAME, NIVEA 등과 한국계 화장품 유통 프랜차이즈 The Face Shop, Skin Food, Missha, TonyMoly, Natural Republic 등 진출로 다양한 한국화장품이 경쟁 중
- 몽골에는 한국 기초·색조 화장품 수입이 연속 5년간 증가세
  - 3년 전인 2016년까지도 몽골 화장품 최대 수입국은 폴란드, 프랑스였으나 2017년부터 한국이 프랑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한국화장품 수입액은 4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에서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2016년까지 전체 화장품 수입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對)한국 수입은 지속 증가세를 유지

## 라. 정책·규제 환경

### 몽골 국가개발계획 개요

- 자히아 엘베그도르지(Tsakhia Elbegdorj) 전 대통령은 1998년 5월 '몽골 국가개발계획'을 최초로 수립, 발표
  -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 왔으나,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이웃 국가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라 장기적 개발계획 수립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1998년 이후 추진한 국가개발 정책의 진도율이 34.7%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장기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이웃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2016년 15년 단위의 '몽골 국가개발계획 2030'을 발표하였고, 2020년에는 25년 단위의 '몽골 국가개발계획 2045'를 작성, 발표할 계획

- ‘몽골 국가개발계획 2045’는 2020년 1월에 제정될 예정
  - 몽골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2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나, 기존 진행한 정책과 같이 5년 단위로 달성도를 평가 계획
  - ‘몽골 국가개발계획 2045’에 앞서 2016년에 제정한 ‘몽골 국가개발계획 2030’에 따라 경제 정책을 추진 중

### 몽골 국가개발계획 2030

- 몽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 추진 및 경제구조 다양화 필요
  - 전체 인구 중 중산층 비율 80%, 평균 수명 78세, 빈곤율 0% 등 국가개발계획 2030년은 인간 개발지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농업 및 산업 분야 중 경공업·식품·전자재·광물 가공·관광·광산 채굴업 등 부문 발전에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발전 목표로 설정
  - ‘몽골 국가개발계획 2030’ 대비 ‘몽골 국가개발계획 2045’ 정책은 보다 구체적인 개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며, 2020년 1월 제정·발표될 예정

몽골 국가개발계획 2030년 거시지표 전망 현황

No.	구분	단위	기존 통계 (2014년)	향후 전망 (2030년)
1	평균 경제성장률	%	7.8	6.6
2	1인당 GNP	달러	4,166	17,500
3	인간개발 지수	순위	90	70
4	평균 수명	년	69.57	78
5	빈곤율	%	21.6	0
6	국가경쟁력 지수	순위	104	70
7	사업 운영	순위	56	40
8	자연환경	순위	111	90
9	경제 활동 인구의 사회보험 가입률	%	84.4	99
10	소득 불공평 수치	포인트	36.5	30.0
11	신생아 1,000명 중 유아 사망 기준		15.1	8
12	100,000명 중 산모 사망 기준		30.6	15
13	초·중·고등학교 1교실 당 학생 수	명	27.3	20
14	세계동물보전기구의 검역 조건을 충족한 지역의 비중	%	0	60
15	사막화된 지역의 비중	%	78.2	68
16	보호지역 비중	%	17.4	30
17	몽골 관광객 수	백만 명	0.392	2.0
18	안정적인 전기 공급받는 가구 비중	%	89	100
19	전체 수출 중 가공업 비중	%	17	50
20	주요 연료 소비의 국내생산 공급 비중	%	0	100

자료 : 몽골 법률 사이트/www.legalinfo.mn/

## 2 시장 분석

- ※ 몽골 주요 수출 광물의 수요 및 시세 증가로 인한 수출 확대로 2018년에는 최고치 기록, 향후 광물(구리 제외) 시세 안정으로 무역규모 증가 전망
- ※ IMF 체제 수용에 따른 긍정적인 거시지표 결과로 외국인 투자자 신뢰 및 FDI 증가세이며, OT 등 메가 프로젝트 개발로 점진적인 유입 확대 예상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인구 3백만의 작은 시장이나, 한류 영향으로 중소기업 유망 틈새시장 부상

- 한류 영향으로 한-몽 간 상품·서비스·인적교류 활발하며, 한국은 몽골의 4위 교역국
  - 한국 프랜차이즈의 성공적인 진출(이마트, 탐앤탐스, 카페베네, 뚜레쥬르, CU 등)
  - 한국 병원 및 의료 서비스, 한국형 아파트 건설 분양, 한국 식료품, 화장품, 의류 등의 광범위한 유통

#### 내륙국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국과의 교역 확대 희망

-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최대 수출시장)과 러시아(에너지 공급원) 의존적 국제관계에서 탈피, 소위 '제3의 이웃'(미국, 일본, 한국, 인도 등)과의 교역확대 추진
  - 2015년 2월 몽골의 최초 FTA 일본과 체결, 2016년 6월 6일부로 발효
  - 미국, 캐나다, 한국, 중국 등 국가와 FTA 체결 희망, 2016년 7월 한국과 EPA 체결 추진 합의했고,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 계기로 FTA 체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캐나다와는 투자안정보장협정 체결
- 내륙국가 교통운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철도·도로 인프라 개발 계획
  - 울란바토르 철도(러-몽 합작기업)의 단선 철로를 복선 철도로 확장하는 사업을 조속 추진할 계획이며, 통과 운송 물류량 확대 전망
  - 국내 철도망 확대를 위해 신규 '몽골 철도'국영기업 신설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 물류망에 몽골 포함 노력, 인근 주요 항만 천진항, 나진항 물류 터미널 사용 협정 체결 등

### 나. 교역

#### 몽골의 교역 동향

- (개황) 2018년 몽골 대외교역은 사상 최고치 기록

- 2019년 대외교역은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80억 달러 기록 중
- 대표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인 몽골은 2014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2013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 자원가격 하락, 몽골 정부에 대한 신뢰 결여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FDI 및 외환보유고 급감 등 경제 위기에 따라 성장률은 둔화된 반면, 환율 및 물가상승 등으로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최근 6년간 몽골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7월
대외교역	11,011.1	8,466.7	8,274.4	10,536	12,886.7	8,078.7
수출	5,774.5	4,669.5	4,916.3	6,200.6	7,011.7	4,571.5
수입	5,236.6	3,797.2	3,358.1	4,335.4	5,875	3,507.2
무역수지	537.9	872.3	1,558.2	1,865.2	1,136.7	1,064.3

자료 : 몽골 관세청

- o (수출) 몽골 총 수출의 80% 이상을 광물자원 수출이 차지
  - 몽골 주요 수출품은 광물, 방직용 섬유, 금속 등 순
  -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영국, 러시아 순으로 상위 2개국이 전체 수출의 약 92%를 차지

### 몽골의 품목별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광물성 생산품	4933.7	79.6	6,070.3	86.6	3,833.8	83.9
방직용 섬유와 이들의 제품	335.4	5.4	409.8	5.8	334.5	7.3
금속과 이들의 제품	596.9	9.6	145.5	2.1	196.4	4.3
기타	334.6	5.4	386.1	5.5	206.8	4.5
총 수출액	6,200.6	100	7,011.7	100	4,571.5	100

자료 : 몽골 관세청

### 몽골의 국가별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중국	5,269.0	85.0	6,505.5	92.8	4,136.6	90.5
2	영국	660.5	10.6	172.8	2.5	224.5	4.9
3	러시아	67.6	1.1	85.9	1.2	42.3	0.9
4	이탈리아	26.2	0.4	54.1	0.8	23.7	0.5
5	싱가포르	26.1	0.4	30.0	0.4	18.8	0.4
6	한국	11.6	0.2	21.2	0.3	13.5	0.3
	기타	139.6	2.2	142.2	2.0	112.1	2.5
	합계	6,200.6	100	7,011.7	100	4,571.5	100

자료 : 몽골 관세청

- (수입) 몽골 주요 수출품은 광물자원이고, 주요 수입품도 광물
  - 몽골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역시 국경을 접하는 중국과 러시아이며, 그 다음으로 제3의 이웃 국가로 불리는 일본, 미국, 한국 순위이고, 이들 국가는 전체 수입액의 80%를 점유 중

### 몽골의 국가별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중국	1,412.6	32.6	1,969.0	33.5	1,123.4	32.0
2	러시아	1,217.3	28.0	1,710.3	29.1	957.8	27.3
3	일본	363.1	8.4	561.0	9.5	372.5	10.6
4	미국	208.4	4.8	211.4	3.6	196.4	5.6
5	한국	197.7	4.6	262.3	4.5	159.6	4.6
6	독일	128.3	2.9	168.7	2.9	103.3	2.9
	기타	808.1	15.7	992.3	16.9	594.2	16.9
	합계	4,335.5	100.0	5,875.0	100.0	3,507.2	100.0

자료 : 몽골 관세청

- 몽골의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생산품(23%), 기계류(22%), 차량 및 항공 관련 부품(15%), 조제 식료품(7%) 등이며, 몽골은 생산기반 취약으로 광물 원자재를 수출하고 가공한 광물성 생산품을 수입

### 몽골의 품목별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광물성 생산품	985.9	22.7	1,325.7	22.6	778.2	22.2
기계류 및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920.8	21.2	1,285.9	21.9	696.6	19.9
차량·항공기와 수송기기 관련품	622.6	14.4	896.7	15.3	688.7	19.6
비금속과 그 제품	333.9	7.7	540.3	9.2	329.7	9.4
조제식료품	378.7	8.7	436.7	7.4	247.8	7.1
화학공업 생산품	315.0	7.3	372.1	6.3	202.2	5.8
기타	778.5	18.0	1,017.6	17.3	564	16.0
총 수입액	4,335.4	100	5,875.0	100	3,507.2	100

자료 : 몽골 관세청

### 수입규제 및 장벽

- (자국 산업 육성) 수입 대체 및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농산물 수입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표품목으로 가구(관세율 25%), 주류(관세율 40%까지), 육류·채소·밀(관세율 20%까지) 등
  - 몽골은 생필품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일반적으로 수입품의 관세율은 5%

## 다. 투자진출

### 몽골 외국인 투자 동향

- (개황) 2018년 몽골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7.7% 증가했으며, 2019년 6월까지의 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4% 하락
  - 세계적인 자원 부국인 만큼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70% 이상이 광산개발에 집중되어있으며, 그다음으로 무역 유통·식품제조업, 은행금융업, 건설업 순

### 몽골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FDI 유입액	337	94	-4,072	1,446	2,137	934.9
전년 대비 증감률	-83	-72	-4,431	-	32.8	-7.4

주 : 2019년 9월 기준 확인 가능 최신자료

자료 : 몽골 중앙은행

- (투자국) 2019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가별 누적금액 기준으로 캐나다와 중국 2개국이 총 투자액의 약 55%를 차지
  - 1990년~2019년 상반기까지 누적금액 기준으로 대(對)몽골 투자 1위국은 캐나다(32.0%)이며, 다음으로 중국(22.9%), 싱가포르(7.8%), 룩셈부르크(6.3%), 홍콩(4.9%), 일본(4.2%), 미국(3.6%), 네덜란드(3.2%)의 순이고, 한국은 2.1%로 9위, 이웃국인 러시아는 0.6%로 17위를 차지

### 누적금액 기준 국별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No.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1	캐나다	8,990.0	8,859.2	4,524.5	4,610.2	6,020.4	6,797.0
2	중국	3,245.4	3,294.3	3,880.4	4,606.9	4,645.2	4,867.2
3	싱가포르	1,689.6	1,712.8	1,658.4	1,652.3	1,634.6	1,667.0
4	룩셈부르크	451.9	433.7	440.0	1,383.0	1,413.9	1,338.0
5	홍콩	1,098.3	1,220.2	797.2	965.5	1,037.5	1,048.4
6	일본	132.7	498.1	582.8	661.1	752.3	894.0
7	미국	632.3	674.1	701.1	671.4	690.3	763.4
8	네덜란드	418.1	497.5	531.2	704.9	684.7	689.4
9	한국	227.9	179.7	159.6	441.6	452.6	454.6
10	영국	1,533.5	1,479.8	1,267.2	402.6	435.2	478.6
	기타	1,827.3	1,846.8	1,735.0	371.9	2,028.0	2,186.0
	합계	20,247.0	20,696.2	16,277.4	16,471.9	19,794.7	21,183.6

자료 : 몽골 중앙은행

- (투자기업) 2019년 상반기 몽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총 40개국 1만 2,640여 개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 투자
  - 몽골 최대 투자국인 캐나다의 대(對)몽골 투자는 광업이며, 대규모 투자자는 Ivanhoe Mines, Centera Gold Corporation 등
  - 중국의 대(對)몽골 투자는 주로 광업, 무역 및 요식업 등 분야에서 이뤄지며, 대규모 투자자는 Tsairt Mineral, Qinhua Mak Naryn Sukhait, Petro China Dachin Tamsag 등
  - Oyu Tolgoi 광산 최대 투자자인 Rio Tinto 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동사의 투자금은 싱가포르, 네덜란드, 홍콩,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 등 국가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 국가 투자금이 전체 투자액 중 꾸준히 상위권에 자리함

**Oyu Tolgoi(OT) 광산**은 세계 최대 구리 광산으로 2001년에 캐나다 터키이즈 힐 리소스(Turquoise Hill Resources)사가 발견, 2009년 국회에서 OT 투자 계약을 승인했으며, 지분구조는 영국의 리오 틴토(Rio Tinto)사가 66%, 몽골 정부 대리인으로 에레데네스 오유 톨고이(Erdenes Oyu Tolgoi) 사가 34%의 지분을 보유  
 \* 철광석 33억 8,000만 톤, 구리 3,110만 톤, 금 1,328톤, 은 7,601톤, 몰리브덴 8만 1,600톤 채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총 550억 달러의 수익 기대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부패관행 등 공공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불신이 기업 진출의 전반적인 애로로 작용
  - 2018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부패지수(CPI) 전체 180개국 중 93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신흥국 중 높은 수치 기록
  - \* '14년 80위, '15년 72위, '16년 87위, '17년 103위, '18년 93위

## 라. (서비스 산업 진출 성공 사례) 한국형 실내 놀이시설 몽골 진출

- P사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업체로 1993년 설립 후 20여 년간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국내 300여 개 및 해외 20여 개 매장을 보유 중
- 동사는 몽골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시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울란바토르 시내에 대형 유통점 확장 계획을 입수하고 시장성 조사와 현지 입지 조사를 위해 울란바토르 출장을 시행
- KOTRA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활용, 울란바토르무역관을 방문해 현지 법인설립 절차 등 현지 법률자문 등을 진행, 지원을 받음으로써 초기 진출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음
- 동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시장에 이어 비교적 저평가되고 있었던 몽골 시장의 잠재력을 발견한 진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몽골의 경우 여름보다 겨울이 길고 연중 평균기온이 영하에 달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실내놀이터 수요가 높은 상황

- 또한, 울란바토르에서도 신흥 부층으로 고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자이승 지역에 입지를 잡은 것도 진출 유인으로 작용
- 동 진출사례는 'K-pop', 'K-beauty'에 이어 'K-play'라는 새로운 분야를 몽골에 소개하고, 신(新)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몽골 시장 진출을 발판 삼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및 CIS 지역으로의 진출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 가. 교역

##### 한-몽 교역 동향

- (개황) 2019년 8월 기준 양국 교역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억 1,900만 달러 기록
  - 2016년까지 하락 추세를 보여 온 교역액이 2018년 전년 대비 37% 증가
  - 양국 교역에서 한국의 대(對)몽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92% 이상

한-몽 연도별 교역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수출	347	246	209	228	308	198
증감률	(-13.2)	(-29.2)	(-15)	(9.4)	(34.7)	(4.7)
수입	23	46	10	14	27	21
	(-12.5)	(95.8)	(-77.6)	(36.7)	(90.1)	(111.5)
무역수지	323	199	198	214	281	177
	(-13.2)	(-38.4)	(-0.5)	(8.1)	(31.3)	(-1.1)
교역	370	292	219	242	333	219
	(-13.2)	(-21.1)	(-25.0)	(10.5)	(37.6)	(10.0)

주 : 한국무역협회와 몽골 관세청 통계 자료는 항상 차이 있음에 유의할 것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 (수출) 2018년 한국의 대(對)몽골 수출은 전년 대비 34.7% 증가한 3억 765만 달러 기록
  - 2012년 최초로 4억 달러 돌파한 수출이 2016년까지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주력품목의 수출 부진에 기인

품목별 몽골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순번	품목 (MTI)	품목명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수출			228,353	9.4	307,649	34.7	197,722	4.7
1	7251	건설 중장비	19,998	213.6	26,982	34.9	17,324	-17.9
2	7412	화물자동차	17,979	-2.9	25,029	39.2	19,743	15.0
3	7471	항공기	72	0.0	21,005	29,075	3	617.6
4	0154	연초류	15,810	27.6	18,208	15.2	14,791	34.0
5	1336	윤활유	13,199	3.3	15,994	21.2	10,520	-9.7
6	2273	화장품	11,708	16.7	12,771	9.1	10,350	26.1
7	7411	승용차	10,790	-30.1	10,123	-6.2	6,143	-5.5
8	8147	의료용 전자기기	2,204	3.3	10,041	355.7	2,308	-68.2
9	2262	의약품	6,425	21.6	9,910	54.3	6,456	26.8
10	7420	자동차부품	7,363	242.9	9,394	27.6	4,989	-23.6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 (수입) 한국의 대(對)몽골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 의류, 양모 등이며, 이 가운데 광물이 항상 높은 점유율을 차지
  - 2018년 한국의 대(對)몽골 수입은 전년 대비 90.1% 증가한 2,690만 달러 기록

### 주요 품목별 대(對)몽골 수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순번	품목 (MTI)	품목명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수입			14,156	36.7	26,905	90.1	20,755	111.5
1	1190	기타금속광물	2,367	593.0	8,212	246.9	8,083	95.0
2	4411	편직제 의류	4,114	57.6	6,247	51.8	7,452	326.1
3	1130	동광	0	0.0	4,844	4,036,487	0	0
4	1290	기타비금속광물	1,550	-32.3	1,383	-10.8	1,612	75.4
5	4412	직물제 의류	1,245	179.7	1,249	0.3	851	151.7
6	0233	동물성 한약재	584	-47.4	1,147	96.5	442	-46.2
7	4414	의류 약세서리	1,249	61.7	978	-21.7	629	213.7
8	621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239	844.7	485	102.9	250	3.9
9	0241	육류가공품	343	-1.6	393	14.6	281	19.9
10	1333	제트유 및 등유7	171	14.6	260	51.9	210	2.5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 수출 성공 사례

- (성공사례) 4년의 오랜 시도 끝에 클린룸 설비 수출 성공
  - C사는 산업용 클린룸(ICR), 바이오 클린룸(BCR), 병원용 무균 수술실 등 클린룸 항온항습 설비 및 기타 산업용 utility 설비 등의 첨단 시스템을 국내시장 및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
  - 국내 병원 수출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G Hospital 신축공사에 무균수술 및 의료가스 공급설비 공사를 수주해 성공적인 의료수출기업으로 첫발을 내딛었음
  - 이후 S병원 프로젝트 정보를 입수한 울란바토르무역관은 C사와 연결시켜 약 10억 원 상당의 클린룸 공사계약서 서명에 성공하였으나, 현지 병원 자금사정 악화로 동 공사 계약이 지연되었지만 3년간의 끈기 있는 F/up을 통해 자금 확보 후 재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도 계약금 송금 차질 등 우여곡절 끝에 1년여의 꾸준한 접촉 노력과 관리로 S병원 프로젝트를 4년 끝에 성공적으로 완수

## 나. 투자

### 한국의 몽골 투자 동향

- (개황) 한국의 대(對)몽골 투자는 수교 이후부터 2019년 3월까지 누적 4억 7,901만 달러에 도달

- 누적금액 기준으로 광업(27%)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 도소매업(18%), 건설업(12%), 부동산 및 임대업(11%) 등의 순
- 2018년 투자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2,268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도소매업 투자가 1,094만 달러로 가장 많음

연도별 대(對)몽골 투자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연도	신규법인수	신고건수	신고금액	실 투자금액	
1994 ~ 2005	82	154	56,095	28,630	
2006	26	53	44,129	19,703	
2007	55	105	50,731	44,433	
2008	79	196	165,201	60,629	
2009	46	115	123,017	28,285	
2010	45	115	58,447	27,185	
2011	53	136	59,987	44,123	
2012	46	136	96,591	55,979	
2013	33	121	61,249	49,036	
2014	46	111	43,402	32,100	
2015	31	113	83,279	39,141	
2016	16	72	28,870	10,585	
2017	33	79	21,346	13,569	
2018	25	83	43,608	22,685	
분야	도매 및 소매업	9	31	13,993	10,947
	광업	0	15	17,228	4,261
	건설업	1	5	5,000	1,326
	금융 및 보험업	1	6	1,221	1,2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4	816	1,015
	부동산업	2	4	995	992
	정보통신업	2	3	400	64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4	2,199	587
	숙박 및 음식점업	3	4	356	5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2	500	50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1	500	387
	농업, 임업 및 어업	1	2	200	200
	운수 및 창고업	0	1	100	4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1	100	30
	제조업	0	0	0	21
2019	11	21	7,115	2,933	
누계	627	1,610	943,067	479,015	

주 : 2019년 8월 기준 확인 가능 최신 자료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누적) 광업이 신고액, 송금 횟수, 투자금액 면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 반면에 신고 건수 및 신규법인 수 면에서 도소매업이 상위 기록

### 업종별 대(對)몽골 투자 현황

(단위 : 천 달러, %)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액	송금 횟수	투자금액	비중
광업	284	48	318,724	451	128,818	26.9
도매 및 소매업	375	157	151,283	450	88,255	18.4
건설업	176	78	101,593	249	58,502	12.2
부동산업	119	39	102,622	217	53,413	11.1
정보통신업	62	24	45,545	73	29,615	6.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7	11	43,762	95	24,998	5.2
제조업	161	90	65,047	215	22,933	4.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	46	23,511	95	18,628	3.9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31	24,034	104	14,240	3.0
운수 및 창고업	51	17	18,653	79	14,052	2.9
숙박 및 음식점업	29	21	11,397	45	9,029	1.9
농업, 임업, 어업	57	17	10,782	82	5,225	1.1
금융 및 보험업	22	10	3,781	23	3,412	0.7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8	3	4,791	11	3,111	0.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22	11	12,459	50	2,759	0.6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	6	1,620	41	850	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0	11	2,683	19	676	0.14
교육 서비스업	6	4	370	6	370	0.07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3	400	4	130	0.02
합계	1,610	627	943,067	2,309	479,015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자규모)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47%) 진출이 활발하며, 다음으로 개인(43%), 대기업(7%)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금액 기준으로도 중소기업(5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대기업(33%) 투자 실적이 많은 것으로 집계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몽골 장기 개발정책 및 공동 프로젝트에서의 협력 가능성 모색 필요

- '신북방정책'추진 시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을 위한 연결로 확보에 유라시아 중심 지역에 위치한 몽골이 중요한 전략적 가치 보유
  - 신북방정책의 핵심 과제가 교통·물류·에너지 관련 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이므로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와 상당 부분 부합

- 동북아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물류시스템 개선 시 자원수송의 효율성과 연계 국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산업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몽골 국가개발계획 2030' 활용 필요
  - 몽골은 동 전략 계획에서 농업·에너지·건설·관광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산업 측면에서 협력 가능 분야 다대
  - 광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수입대체 제조업 육성 등 경제구조 다변화 정책 추진
  - 2020년 발표 예정인 '몽골 국가개발계획 2045'에 보다 장기적 개발방향 등이 포함될 계획이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 있음

#### 한국, 총 7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몽골 제공

- 2015년 12월 3억 달러의 EDCF 약정 체결 후 2018년 1월 5억 달러 추가 증액
  - 기존 1억 달러 소진, 잔여 2억 달러에 5억 달러를 추가 증액하여 2019년까지 총 7억 달러를 제공하며, 이는 대기오염 개선 등 환경 분야에서 사용 예정이고, 현재 분야별 구체적 사업 선정 단계



# Ⅲ. 진출전략

- ※ 몽골 경제 회복과 소비자 구매력 증가에 따른 소비재 시장 공략
- ※ 협소한 시장, 열악한 물류 환경 감안,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시장 진출 추진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몽골 시장 SWOT 분석>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b>S</b>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b>강점 (Strength)</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터운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비인구 급증</li> <li>• 몽골 내 한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입점 증가로 비교적 용이한 유통망 확보</li> <li>•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몽골 인력 풍부</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709238;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b>W</b>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b>약점 (Weakness)</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과의 EPA 체결로 인한 일본제품 경쟁력 확보</li> <li>• 물류·유통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 열악</li> <li>• 내륙국가로 높은 물류비용으로 인한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4CAF5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b>O</b>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b>기회 (Opportunity)</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거대0 시장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인접</li> <li>• 저렴한 노동력, 값싼 원자재 보유</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9575CD;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9575CD; color: white;"> <b>T</b>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9575CD;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b>위험 (Threat)</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광물 가격 하락</li> <li>• 재정정책 확대 및 재정지출 확대 우려</li> <li>• OT 지하광산 투자 축소</li> <li>• 중국 경제 성장 둔화</li> </ul>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한국 기술력과 현지 저렴한 원자재 및 인력을 활용한 제조업 진출	소비재, 프랜차이즈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ST 전략 (강점 활용)	• 중산층 신(新) 수요를 겨냥한 유망 소비재 발굴 • 우리나라 기 구축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최대한 활용	디지털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시장 공략
WO 전략 (기회 포착)	• 몽골을 제조 및 물류 거점으로 주변국으로 시장 확대	인접국 마케팅으로 물류비용 절감
WT 전략 (위험 대응)	• SNS 등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몽골 소비재 시장 진출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	정부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통해 건설 인프라 시장 공략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2-1. 한류를 활용한 가공식품·화장품의 생산·유통·판매 경로 다각화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산 가공식품 및 화장품 수입 실적 증가
  - \* 수입 시장 점유율 한국산 라면 1위, 화장품(HS3304) 시장 점유율 2위
- 한류 열풍 및 한국계 유통 프랜차이즈 진출 증가로 한국산 생활소비재는 인지도가 높은 품목
  - \* E-mart, CU 등 한국계 유통 프랜차이즈 진출을 통한 한국산 제품 홍보·마케팅 증가에 따라 한국산 수요 꾸준히 증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트렌드) 몽골의 한국산 가공식품과 화장품 수입 실적의 꾸준한 증가세
  - 한류 열풍 지속, 한국계 유통 프랜차이즈 진출 증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홍보에 따른 한국산 가공식품 및 화장품 인지도 증가
    - \* 한국산 스킨케어 수입실적 : '16(196만 달러)→ '17(255만 달러)→ '18(286만 달러)
    - \* 한국산 라면 수입실적 : '16(265만 달러)→ '17(268만 달러)→ '18(278만 달러)
- (주요 이슈) 한국계 유통 프랜차이즈 진출 증가 및 한국산 인지도 증가
  - 화장품 및 생활소비재 유통 프랜차이즈로 Emart, CU, The Face Shop, TonyMoly, Missha, Nature Republic 등의 진출로 한국산 화장품 및 생활소비재 인지도 급증
  - Emart 및 CU를 통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한국계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진출전략 필요
  - 2019년 이마트(2016년 1호점 진출) 3호점 개설, CU 편의점(2018년 진출) 50개 지점 개설 등 한국계 대형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대중소 동반진출전략 필요
  - 또한, 신규수출기업의 경우 KOTRA에서 추진하는 '내수기업 진출을 위한 위탁 판매 사업' 활용도가 높은 편
- (유망품목) 최근 3년간 대(對) 몽골 수출이 증가한 품목 중심으로 유망
  - 화장품 : 스킨케어 제품, 파우더 메이크업 제품
  - 가공식품 : 라면, 장·소스류, 즉각 음용 가능 음료수 등

## 2-2. 의약품·의료장비 수출로 열악한 몽골 의료 시장 수요 충족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몽골 생산 의약품 시장에 비해 수입의약품 시장 급성장
  - \* 국내생산 의약품 시장 3,600만 달러('17년)→ 4,000만 달러('18년)
  - \* 수입의약품 시장 7,706만 달러('17년)→ 9,600만 달러('18년)
- 의료 산업 성장 속도에 비해 의료 인프라 열악
  - \* 부족한 의사 및 침대 수, 의약품 원자재 부족, 높은 영아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로 의료 인프라 개선 시급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트렌드) 2018년 몽골 수입의약품 시장은 전년 대비 25%로 급성장
  - 국내 생산 의약품 시장 성장률은 약 10%로 수입의약품 시장 대비 약화되고 있으며, 반면 급성장하는 수입의약품 시장에는 대(對)한국 의약품 수입이 대폭 증가해 의약품 수입 대상국 중 7위에서 4위로 도약
    - \* '16(296만 달러) → '17(458만 달러) → '18(661만 달러)
- (주요 이슈) 몽골 정부 예산 부족으로 열악한 의료 인프라
  - 의료진 및 의료시설 부족으로 높은 사망률 지속
    - \* 몽골의 의사 수는 2018년 1,000명당 3.5명, 환자 127명당 침상 1개
  - 몽골 전체 의료기관 중 민간기업체는 88%로 국민들은 정부 운영 의료기관에 비해 민간 기관에서의 의료 서비스 이용도가 높은 편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현지 유력 파트너와의 협력이 효과적
  - 몽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는 MONOS, ASIA PHARMA, MEIC 등 소수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록 절차 완화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로 통상 현지 파트너를 통해 등록 및 유통시키는 것이 일반적
  - 또한, 현지 유력 파트너와 협력하여 의약품 생산공장 설립을 통한 시장 진입 및 원료 수출기회 모색 필요
    - \* 현지 유력 파트너 : MONOS, ASIA PHARMA, MEIC, TAVIN US, MUNKHIIN TUN, PALOMA EURO PHARMA, MONGOL PHARMA 등

## 2-3. 유망 프로젝트 수주 통한 수출 기회 창출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8년 몽골 건설 시장규모 4.7억 달러로 GDP 기여율은 3.6%
  - \* 2019년 5.3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4% 성장
  - \* 2018년 12,800가구 아파트, 442.4km 도로, 14,200 좌석 학교, 616 침상 병원 등 신설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트렌드) 몽골 건설 시장은 외국기업 참여율이 약 15%로 향후 지속 확대 전망
  - 2018년에는 전체 건설공사 금액은 약 16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15%를 외국기업이 수행한 것으로 집계(2017년 외국기업 참여율은 12.7%)
  - 몽골 건설공사 중 외국기업 참여율은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이슈) 인프라 구축 대상 사업은 많은 반면, 구축 속도가 지연
  - 정부의 인프라 시설 구축계획 추진으로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프로젝트 입찰 및 추진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존재
  - 주요 장애요인은 높은 물류비용, 잦은 담당자 교체, 자금조달 등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유망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수출기회 창출 및 꾸준한 동향 파악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 업체로 납품기회 모색
  - 입찰 참가 또는 벤더 등록에 제약이 많고 절차 및 투입 비용이 많아, 우선적으로 국영기업 및 몽골 현지기업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 들을 대상으로 납품기회 확대
  - 현지 조달제도는 대부분 최저 단가 기준이므로, 현지파트너로부터 단가 인하 요구가 빈번함 고려 요망
- (유망품목) 수입 수요가 높거나 정부의 정책적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품목 선정
  - 철강 등 건설장비와 건설자재(건설, 교통),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태양광 판넬과 부속품 등

## 2-4. 광산 개발 움직임 확대에 따라 광산 기자재 수출 활동 전개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광업은 GDP의 23%, 산업생산의 74%, 수출의 84%를 차지하는 몽골 경제의 추진 동력
  - \* 2017년 들어 광산개발이 활기를 회복하고 있으며, 광산 기자재 수요 증가 추세
- 대(對)중국 광물 수출 비중은 전체의 89%이며, 광산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 역시 중국에서 수입
  - \* 몽골 정부는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해 전략광물 제3국 수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트렌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 조속 추진 예상
  - 몽골 정부는 2014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대규모 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조속 추진 희망
  - Oyu Tolgoi(동·금) 광산의 지하광산 개발, Tavan Tolgoi(석탄) 및 Gatsuurt(금광) 광산개발, Tavan Tolgoi 화력발전소(450MW) 건설, 철도망 확장 사업 등이 우선 추진 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광산 개발에 필요한 중장비,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물품 조달 시장 공략
  - 광산 개발 및 인프라 사업의 경우 조달을 통한 필요물품 소싱이 일반적이며, 벤더 등록 및 현지 유망 광산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활동이 중요
- (유망품목) 광산 중장비부터 부품, 광산 근로자용 소모품 등
  - 수출 가능 품목으로는 광산 개발을 위한 피쇄용 소모품, 중장비, 화물차 및 부속품, 안전용품, 광산 근로자 캠프 생활에 필요한 소모품 등 매우 다양

## 2-5. 관광 산업 분야의 독창적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주어진 자원에 비해 활용도 낮은 몽골 관광 자원
  - \* 사막, 산림, 초원 등 다양한 천혜의 자연환경 보유
- 몽골 방문 관광객 수는 4년 연속 증가 추세
  - \* 38만 명('15년)→ 40만 명('16년)→ 47만 명('17년)→ 53만 명('18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트렌드) 몽골 관광 산업 수요에 따른 관광 서비스 증가 및 법률 규제 강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문객 수에 따른 캠프 및 리조트, 숙박업에서의 외국기업 진출도 증가  
하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캠프 및 리조트, 숙박업 확대에 따른 몽골 정부의 관광업 관련 시설 운영 시 허가제도 및 관광  
안내요원 라이선스 제도 도입 등 법률 강화 예상
- (주요 이슈) 몽골의 장기 개발계획에서의 관광 산업 발전 기대
  - ‘몽골 국가개발 계획 2030’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몽골의 유목민(Nomad) 문화 홍보 강화를  
통해 몽골을 국제적인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
  - 2016년에 발표된 장기 개발계획 중 관광 산업 개발계획에 의하면, 몽골 방문객 수를 38만  
(2015년) 명에서 2백만(2030년) 명으로 확대하고 관광 산업의 GDP 점유율을 2.2%에서 8%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높은 수요 분야 창업 기회 도모 및 독창적 관광 산업 아이템 발굴
  - 몽골에 대한 수요 증가와 몽골의 풍부한 한국어 구사 인력 및 저렴한 노동력
    - \* 한국인 관광객 증가('15년 4.9만 명→ '16년 5.9만 명→ '17년 7.6만 명→ '18년 8.6만 명)
- (유망품목) 관광 관련 기념품, 관광버스 등
  - 몽골 시장이 최근 부각됨에 따라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부족, 노후화된 관광버스 등으로 교체  
수요 임박

### 3 한-몽골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3-1. 울란바토르시 및 인근지역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울란바토르시 과밀화 및 빈민촌 문제로 인하여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심각, 몽골 정부는 EDCF 자금을 투입하여 환경 문제 해결을 계획하고 있음
- 산림청 서울숲 조성 등 한국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기업이 수주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국, 몽골에 2019년까지 총 7억 달러의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자금 제공
  - 2015년 12월 3억 달러의 EDCF 약정 체결 후, 2018년 1월 몽골 후렐수흐 총리 방한 계기로 2015년 12월 체결된 약정에서 잔여로 남은 2억 달러와 추가로 증액된 5억 달러 등 2019년까지 총 7억 달러를 제공
  - 이는 주로 대기오염 개선,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사용하기로 협의, 환경 분야 관련 프로젝트 다수 진행이 예상되며, 현재 분야별로 구체적 사업선정 단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친환경에너지타운, 대기오염 절감 장치, 생활하수 처리 설비 등 환경 분야 시장 공략
  -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EDCF, KOICA 원조 자금 등 재원이 확실한 프로젝트 수주 전략이 필요

### 3-2. 동북아 스마트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노력 필요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몽골은 전력 공급 부족에 따라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
  - \* 중장기적으로 고비 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하여 전력 수출 국가로 발돋움 노력
-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30%로 증대 목표로 각종 지원 강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몽골 정부 ‘중장기 전력에너지 발전 전략(2015-2035)’ 추진
  - 전력에너지원을 다각화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등을 포함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유치를 위해 법적 환경 및 세제 개선, 금융시스템 구축 등 지원 강화
  - \* 울란바토르 인근 도시인 날라흐구의 광산 피해지역 복구사업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ODA 예산을 통해 진행 중이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으로 해당 지역의 광해 복구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설치하여 전력 품질 개선에 기여할 예정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도로·철도,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분야 사업 수주 필요
  - 직접적 광산자원 개발(중소기업의 소규모 광산개발 투자)보다는 자원개발과 연계한 자원가공(에너지, 광해관리 등), 도로·철도 등 인프라 분야 진출 도모
  - \* Tavan Tolgoi 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이 발전소 건설 수주 노력 중

## 3-3.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제조업 육성 등 산업 다각화 추진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몽골 경제, 지나친 광업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수입대체 제조업 육성 등 경제 구조 다변화 정책 추진
  - \* 농업 등 일부 분야 장비 및 기자재에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 등 제공
- 한류, 친한(親韓) 분위기 등을 타고 한국어 구사 가능 인력 풍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몽골 경제 비전 2030’(2016년 2월)에 따라 산업 다각화 추진
  - 2017년 기준 분야별 GDP 기여율 중 제조업은 9.0%를 차지, 전년 대비 1.7% 증가, 몽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육성정책의 효과로 판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제조업 설비 투자를 위한 장비 및 기자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과 정부 지원 혜택 확인
  - 농업 등 일부 분야 제조업 육성을 위하여 장비 및 기자재에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 제공
- 한국어 가능 우수 인력을 활용, 인근 러시아 및 중국 등 거대 시장 공략
  - 몽골에는 한류와 친한(親韓) 분위기로 한국어 구사 가능 인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근국인 러시아(약 1.4억)와 중국(약 14억)의 거대 시장이 존재
  -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몽골의 인력을 활용하여 몽골 및 인근 거대 시장 공략도 노려볼 만함

##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	주문 생산 시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황)</b> 지속적인 현지화 가치 하락으로 대금결제 의무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부터 미국 달러화의 대 투그락화 환율 상승으로 현지 업체들은 대금결제 불이행 사례 종종 발생</li> </ul> </li> <li>▪ <b>(대응전략)</b> 거래 시 대금 부분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거래 이행 또는 외상거래 자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 문제로 주문 연기 및 계약 파기 상황 발생 또는 현물 결제 방법 이용이 일상화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황)</b> 의사 결정권이 없는 직원의 이메일 및 유선 연락으로 생산을 시작해 불측의 손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어 회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유선 상의 접촉으로 대량 주문을 단기간 내 요구함에 따라 계약 성사를 예상한 국내업체가 정식 계약 전에 생산을 시작 하였으나 실제 계약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음</li> </ul> </li> <li>▪ <b>(대응전략)</b> OEM 생산 주문 및 신규 제품 생산 시 선금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결정권이 없는 직원으로부터의 연락 시 계약 및 선금 확보하기 전에 생산 또는 수출하지 말고, 또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 무역관을 통해 회사 및 프로젝트 존재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li> </ul> </li> </ul>

언어소통 문제	입찰 참가 거래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황)</b> 현지업체로부터의 연락에 국내업체는 google translator를 사용해 계약까지 완료한 단계에서 사후에 잘못된 번역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한 통역원 및 구글 번역기를 사용한 현지업체와의 소통에 따른 시간 및 금전적 낭비 문제 발생</li> </ul> </li> <li>▪ <b>(대응전략)</b> 현지업체와 접촉 시 전문 통역원 이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출장 또는 유선 및 이메일 접촉시 KOTRA, 전문통역 센터 등을 통해 통역원을 섭외할 필요가 있으며, 잘못된 통·번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계약서의 경우 통역원 외에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황)</b> 몽골 입찰 제도는 최저가 기준이므로 전체 입찰 참가자 중 최저가 상품만이 성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참가자는 불확실한 거래인데도 국내업체로부터 마치 계약할 것처럼 서류를 요구하며 거래를 중용하다가, 입찰에 성공하지 않을 경우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흔함</li> </ul> </li> <li>▪ <b>(대응전략)</b> 입찰 참가한다는 현지업체 연락에는 제시할 수 있는 최저가를 제안하고 기대감을 낮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으로 몽골 입찰에서는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경우 낙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입찰 참여 시 실제 입찰여부, 입찰 시 가격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제시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함</li> </ul> </li> </ul>

비자발급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황)</b> 몽골 바이어로부터 공장방문 등을 이유로 한국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을 요구하는 사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바이어는 계약 체결 전 국내업체 공장 방문을 위해 초청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실제 초청장 발급 후 교신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li> </ul> </li> <li>▪ <b>(대응전략)</b> 단순한 공장 방문 또는 수출품 체험 등 이유로 초청장 요구 시 신중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측에서 계약 전 공장 방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사람에 대한 초청장 요구 시 주의해야 하며, 초청장 발급 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여부, 필수 인원에 대한 초청장 발급요청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004	수입관세율(%)	5
의약품	수입액('18/US\$백만)	96.0	대한수입액('18/US\$백만)	6.6
	선정사유	의약품 수요가 높으며, 특히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대한민국 수입은 대폭 증가세		
	시장동향	유럽산이 주력이나 점차 아시아 제품으로 소싱 확대		
	경쟁동향	2018년 기준 몽골 의약품 주요 수입국은 슬로베니아(14.2%), 독일(12.7%), 인도(11%) 순이며, 한국(6.9%)은 처음으로 4위 기록		
	진출방안	유력 현지 에이전트 발굴 필요		
품목명 2	HS Code	8702	수입관세율(%)	5
버스	수입액('18/US\$백만)	13.2	대한수입액('18/US\$백만)	8.6
	선정사유	몽골 전체 버스 수입 중 대(對)한국 수입은 65% 점유, 또한, 향후 관광 산업 발전에 따른 버스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2018년에 버스 1,363대 수입, 그 가운데 한국에서 930대, 러시아 및 일본에서 198대, 185대를 수입		
	경쟁동향	2018년 버스 최대 수입국은 한국(65%)이며, 다음으로 러시아(16.3%), 일본(12.7%) 순		
	진출방안	현지 노선을 운영하는 운수기업들과 직접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		
품목명 3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5
화장품	수입액('18/US\$백만)	26.6	대한수입액('18/US\$백만)	3.8
	선정사유	무역사절단 바이어 인기 품목		
	시장동향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다른 수입국 비해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중		
	경쟁동향	최대 수입국은 프랑스(18.7%)이며, 한국(14.3%)은 2016년부터 2위를 차지		
	진출방안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전개 유망		
품목명 4	HS Code	8704	수입관세율(%)	5
화물차(중고)	수입액('18/US\$백만)	283.7	대한수입액('18/US\$백만)	26.3
	선정사유	높은 시장 점유와 지속적인 수요 증가		
	시장동향	중국산 대비 고품질, 일본산에 비해 부속품 공급이 높아 한국산이 인기가 많음		
	경쟁동향	화물차 최대 수입국은 중국(57%)이며, 다음으로 일본(22%), 한국(9.2%) 등 순		
	진출방안	중고품으로 가격이 주 결정 요소		
품목명 5	HS Code	8429	수입관세율(%)	5
건설 중장비	수입액('18/US\$백만)	133.2	대한수입액('18/US\$백만)	25.9
	선정사유	몽골의 대한민국 수입 중 높은 점유율 유지		
	시장동향	독일 등 유럽계 건설 중장비 브랜드 생산기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점유율 우위		
	경쟁동향	TOP3 수입국은 중국(41%), 일본(23%), 한국(19.5%)		
	진출방안	현지 건설 중장비 수입 유통 업체와의 직접적인 접촉		

##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지난 경제 불황 속에서도 몽골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속 성장세를 유지
	시장동향	기존 외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프랜차이즈 진출이 활발했으나 2016년부터 대형마트, 편의점 등 한국 유통 프랜차이즈 진출 활발
	경쟁동향	KFC, 버거킹, The little sheep, CircleK, Shangrila 등 다국적 외식 기업 다수 진출
	진출방안	단독 진출보다 기존 프랜차이즈 진출 경험이 있는 유력 바이어와의 합작 진출이 유리
품목명 2		
금융	선정사유	높은 현지 이자율(예금 적금 13%, 대출 30%)로 인한 높은 금융 수익과 주식시장에 대한 몽골 국민들의 관심 증대
	시장동향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예금 및 대출 증가 등 활발한 성장세 지속
	경쟁동향	일본, 중국계 자금이 유입
	진출방안	금융거래법 등 복잡한 절차가 존재하므로 현지 은행 및 기관과의 인수, 합병 등의 전략 필요

###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한-몽골 수교 30주년	· 한-몽골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정/울란바토르	
2		· 몽골 무역투자 실무가이드 발간	2분기/울란바토르	
3	한국 신규수출기업지원	· 소비재 위탁판매사업	연중/울란바토르	
4	소비재, 의료시장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 전남 중앙아 시장개척단	3월/울란바토르	
5		· 화성시 상공회의소 CIS 시장개척단	4월/울란바토르	
6		· 충북 농식품 러시아-몽골 무역사절단	4월/울란바토르	
7		· 전북 동북아 맞춤형 수출상담회	6월/울란바토르	
8		· 대구 CIS 무역사절단	8월/울란바토르	
9		· 경남 CIS 의류기기 무역사절단	8월/울란바토르	
10		· 경기도 몽골-중국 통상촉진단	9월/울란바토르	
11		· 경북 러시아 종합 무역사절단	10월/울란바토르	
12		사회적 가치 실현	· 광해/석유 기술학교 운영	2분기/울란바토르
13			· 몽골 진출기업 글로벌 CSR사업	4분기/울란바토르

##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몽골 총선	2020.6.29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몽골 세법 발효	2020.1.1	13년 만에 개정
2021년 예산안 발표	2020.10.15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MONGOLIAN MINING 2020	2020.4월	광업 분야 관련 모든 제품 전시 가능 국제적인 전시회
BARILGA EXPO 2020	2020.4월	현지 건자재 관련 대형 전시회
한-몽 우수제품 전시회	2020.8월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전시 가능

**부록**

**對몽골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I. 몽골의 잠재력과 경쟁국 진출현황**

**가. 몽골의 시장 특성과 잠재력**

**몽골의 전략적 가치**

<p>新북방정책 연계를 위한 전략적 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연계 시 연결지역으로 지정학적 중요성</li> <li>•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전략적 거점지역</li> </ul>
<p>세계 10위 자원부국으로 상호보완적 경제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광물자원 산업은 산업생산의 67%,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몽골 경제 성장의 원동력</li> <li>•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한국에 필요한 광물자원 공급 등 한국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 잠재력 큼</li> </ul>
<p>한류 대중화로 중소기업 유망 틈새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는 320만 명의 작은 시장이나 한류 영향으로 상품·서비스·인적 교류 활발</li> <li>* 2018년 기준 방한 몽골인 10만 명, 방몽 한국인 8.4만 명</li> <li>• 한국 프랜차이즈 등 소비재상품 진출 활발</li> <li>* 이마트, CU, 한국형 병원 등</li> </ul>
<p>제3국과의 교역확대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은 접경국인 중국과 러시아 의존적 국제 관계에서 탈피, '제3의 이웃'과 교역확대 추진</li> <li>•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교역확대를 희망</li> </ul>

○ (전략적 중요성) 남북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잇는 철도와 에너지 연계지역으로 한국의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

- 몽골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신북방정책의 주요 전략내용(9 Bridge) 중 철도 연결을 위한 연계지역으로서의 가치 보유
  - \* 남북한 종단철도(TKR), 중국 종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함께 이를 연계하는 몽골 종단철도(TMGR) 연결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철도 연결의 효과 극대화
- 몽골은 세계 19위의 광활한 영토(1,565,600km<sup>2</sup>)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풍부한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자원 공동연구 및 개발 가능성 충분함.
  - \*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중·일·러·몽골을 연결하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구축 계획으로, 몽골의 고비사막에서 생산된 태양광, 풍력에너지를 국가 간 연계하는 광역 전력망

## 동북아 슈퍼그리드 개념도



- (세계 10대 자원부국) 광업부문은 몽골 총수출의 80%, 산업생산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
  - 몽골 보유 광물은 총 80여종으로 구리(세계 2위), 석탄(세계 4위), 형석(세계 3위), 금, 은, 철, 납, 몰리브덴, 텅스텐, 우라늄 및 아연 등 광물이 풍부하며, 희토류 세계 매장량의 16% 차지
  - 몽골은 3C(Coal, Copper, China) 및 FDI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광업은 총수출의 80%, 산업생산의 74%, GDP 기여율이 23.5%에 달할 정도로 몽골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몽골의 전략광산 위치



- (한류 유망 틈새시장) 인구 323만 명의 작은 시장이나 한류 유망시장
  - 한류 영향으로 한-몽 간 상품·서비스·인적 교류가 활발할 뿐 아니라 매년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은 몽골의 제4위 교역 대상국
    - \* 2018년 기준 방한 몽골인은 약 10만 명, 방몽 한국인은 약 8.4만 명으로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 \* 이마트, 카페베네, 뚜레쥬르, CU 등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 등 의료서비스와 소비재 진출 활발
- (제3의 이웃정책) 내륙국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국과의 교역확대 희망
  -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최대 수출시장)과 러시아(에너지 공급원) 일변도의 의존적 국제 관계에서 탈피, 소위 '제3의 이웃'으로 미국, 일본, 한국, 일본 등과의 교역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
    - \* 몽골은 2015년 2월 일본과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을 최초로 체결하였으며, 한국과는 2016년 EPA 체결 합의

## 나. 경쟁국 진출 현황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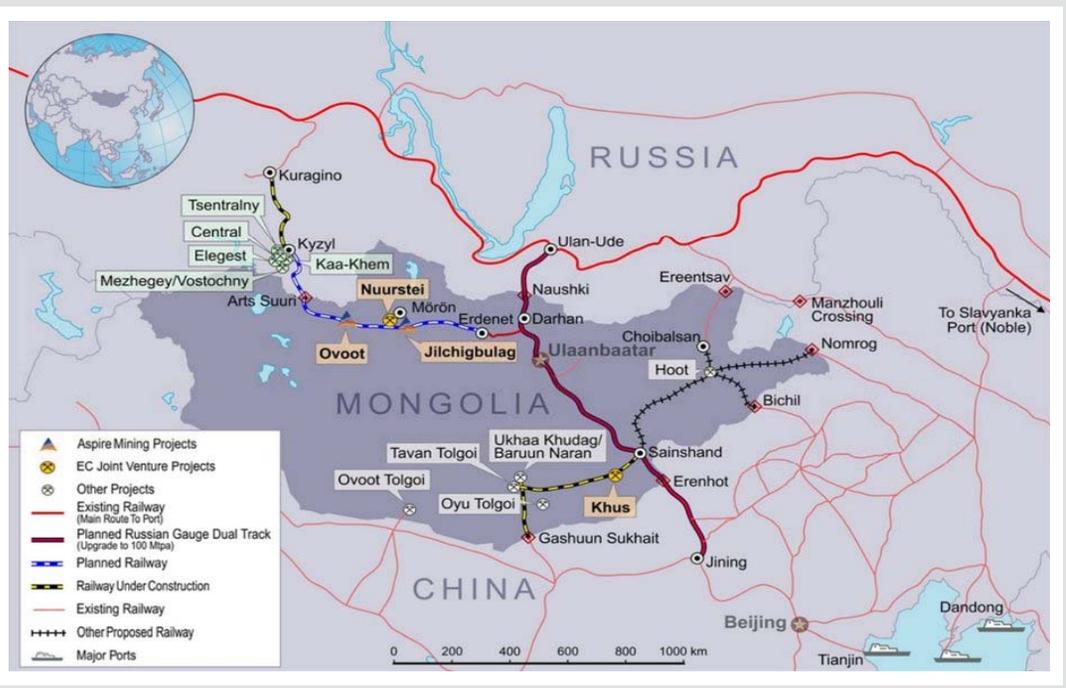
- 몽골의 최대 수출국이자 제2위 투자국인 중국은 1971년 외교관계 복원 이후 지리적 근접성,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
  - 몽골과 중국 외교관계는 '선린우호 및 상호신뢰 동반자 관계(200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2011년)',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2014년)'로 발전
- 2018년 기준 중국은 몽골의 제1위 수출국이자 제1위 수입국
  - 몽골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65억 5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92.8%, 수입액은 19억 6,9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33.5%를 차지
  - 몽골의 대(對)중국 수출품목은 광물생산물(전체의 96%)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품목은 철강 및 건자재, 화물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중국의 대(對)몽골 투자는 2018년 누적기준으로 46억 4,500만 달러로 중국은 몽골의 제2위 투자국
  - 중국의 대(對)몽골 투자는 광업, 무역·요식업에 집중되며, 대규모 투자자는 Tsairt Mineral, Qinhuia Mak Naryn Sukhait, Petro China Dachin Tamsag 등임
  - 중국은 교역, 투자 외에 차관 및 통화스왑 등 경제 지원과 함께 에너지 인프라 사업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영향력 확대 중
- 중국은 몽골과 20억 불 차관협정 및 무상원조,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 및 금융 분야 협력 등을 진행했으며, 향후 일대일로(一帶一路) 연계 경제회랑 사업을 추진 중

- 중국의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과 자국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및 유틸리티를 통합하는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사업은 물리적인 연결 이상으로 정책 협력, 무역 및 금융 협력, 사회 및 문화적 협력 등 세계 최대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는 목표에 따라 몽골은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하는 '초원의 길' 사업을 추진

\* '초원의 길' 사업은 러시아와 중국을 철도 및 고속도로로 연결해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 발전하는 것이 주 목표임

- 몽·러·중 3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몽골의 '초원의 길' 사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을 연계해 3국을 인프라 건설로 연결하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협상 중인데, 이는 국경간 도시에서 자유 무역 및 경제 협력 구역을 설립하기 위한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업임

### 경제회랑 계획 맵



자료 : www.montsame.mn

### 러시아

- 몽골과 러시아는 192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
  - 몽골과 러시아는 1993년 '몽·러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
  - 양국은 2016년 4월 14일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중기계획'을 체결

- 2018년 기준 러시아는 몽골의 제3위 수출국이며 제2위 수입국
  - 몽골의 대(對)러시아 수출은 8억 5,9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2%, 수입은 17억 1,030만 달러로 29.1%를 차지
  - 몽골의 대(對)러시아 교역구조는 만성적 적자구조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등 에너지 제품에 집중되어 있음
    - \* 정유시설이 없는 몽골은 자국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93%를 러시아에서 수입
- 반면, 러시아의 대(對)몽골 누적투자액은 1억 8,200만 달러로 대(對)몽골 투자국 중 13위에 불과
- 몽골의 에너지 공급원인 러시아는 경제보다 철도 인프라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중점
  - 몽골의 첫 수교국(1921.11.5)인 러시아는 몽골 에너지 공급원
  - 내륙국가인 몽골에서 철도는 화물운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러시아부터 수도 울란바토르를 거쳐 중국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이 개발되어 있으며, 1949년에 러시아와 몽골 정부가 각 50%의 지분구조로 설립된 울란바토르 철도공사(UBTZ)는 몽골 전체 화물 운송의 50%이상, 승객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몽골 철도 분야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몽골 철도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타반톨고이와 에르데넛 개발에 전력을 쏟았음
  - 몽골 전략광산이자 아시아 최대 구리 광산 중 하나인 에르데넛(Erdenet) 구리광산은 1978년대에 구소련(49%)과 몽골(51%)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16년까지 38년간 러시아는 동사의 49%를 소유했고, 또한, 몽·러 합작회사인 Mongolroostsvetmet는 1973년도부터 철광석 생산 및 수출사업을 진행 중

## 일본

- 1990년 몽골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래 일본은 고위급 교류확대, 선도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2015년 몽골과 최초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 일본과 몽골은 1996년 ‘포괄적 동반자관계’,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외교관계 발전
  - 2015년 2월 10일, 일본은 몽골과 최초로 EPA를 체결함
    - \* 몽·일 EPA 협정으로 발효 이후 10년 내 관세 철폐품목 96%로 확대, 4,500cc 이하 완성차에 대한 관세(5%) 즉시 철폐, 몽골 에너지·자원 분야에 일본기업 진출 시 내국민·최혜국 대우 부여, EPA 협정문에 DDS 조항 포함 등이 골자
- 2018년 기준 일본은 몽골의 제3위 수입국이자 제6위 수출국
  - 몽골의 대(對)일본 수출은 2,650만 달러, 수입은 5억 6,100만 달러로 제3위의 교역국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 섬유제품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중고차(대일본 수입의 63.7% 차지), 건설장비 등임

- 2018년 누계 기준 일본의 대(對)몽골 투자액은 7억 5,230만 달러로 제6위의 투자국임
  - 일본의 대(對)몽골 투자는 광업 외에 무역·요식업, 경공업, 정보통신 등 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확대 추세
  - 몽골은 전력수요 대비 공급능력 부족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하며, 발전소 노후화 및 높은 전력 손실 문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30%를 확대키로 계획(‘개발계획 2030’에 포함)
    - \* 몽골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전기) : '16년 3.9%, '17년 4.4%, '18년 7.1%
  - 이에 따라 몽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일본 진출이 확대되어, 몽골 최초의 대규모 태양광 전력 발전소(Sharp 및 Shigemitsu Shoji 투자)를 2017년 1월에 개소했고, 현재 운영되는 3개의 태양광 전력 발전소 중 2개가 일본 투자로 완공, 즉, 몽골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통한 산업협력 확대 중
- 2018년 기준 일본은 대(對)몽골 외국인조액의 39% 점유, 지속적인 경제 원조를 통해 자원·에너지·금융·통신 등 전략 분야 진출 추진 중
  - 몽골 최대 제4발전소, 난방 및 전력 공급원 바가누르(Baganuur) 및 시웨어버(Shivee-Ovoo) 석탄 광산 등 전력 분야 경제지원에 집중
  - 또한, 울란바토르 신공항 건설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지분의 51%는 일본, 나머지 49%는 몽골에서 소유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상반기에 개항 예정
- 2015년 2월 일본은 몽골과 최초의 FTA인 경제 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였고, 2016년 6월 7일부로 발효됨으로써 그간 양국 협력관계를 원조 중심에서 상품 수입 유통으로 전환
  - 몽·일 ‘경제 동반자협정(EPA)’은 몽골 측에서 5,7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그 중 3,723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 1,97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4년에서 최대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반면, 일본 측은 9,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 그 중 8,004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 1,29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협의
  - 동 EPA는 몽골의 최초 FTA에 대등한 경제협정으로 국내 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로 외화 수익 증대, 대(對)몽골 FDI 유입에 선순환 및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통관 절차 등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됨
  - EPA 체결 이후 몽골의 대(對)일본 수입도 급증세
    - \* '14년 3억 6,700만 달러(17.2%↓), '15년 2억 7,400만 달러(25.3%↓), '16년 3억3,000만 달러(20.4%↑), '17년 3억 6,300만 달러(9.8%↑), '18년 5억6,100만 달러(54.5%↑)

## II. 한·몽 경제협력 현황

### 한-몽 교역 현황

- 1990년 수교 당시 270만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양국 간 교역액은 4억 8천 7백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몽골 경제 침체로 2016년 2억 1천 9백만 달러까지 감소
  - 2012년 광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제한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신뢰 저하,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등 외부요인으로 몽골 경기가 침체하면서 교역 금액도 급락
- 2017년 대(對)몽골 수출이 2억 2천 8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9.4% 상승, 수입은 1천 4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7%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타기 시작
  - \* 2017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및 IMF 체제 수용에 따른 환율안정 등이 교역개선에 긍정적 역할
- 2018년 대(對)몽골 수출액은 3억 8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7% 급증, 수입은 2천 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90.1% 늘어나면서 양국 교역의 회복세가 본격화

2012~2019년 한-몽 교역

(백만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수 출	433 (23.9)	399 (△7.8)	347 (△13.2)	246 (△29.2)	209 (△15.0)	288 (9.4)	308 (34.7)	230 (9.0)
수 입	54 (△11.6)	27 (△49.7)	24 (△12.5)	46 (95.8)	10 (△77.6)	14 (36.7)	27 (90.1)	25 (92.8)
무역수지	379	372	323	200	199	214	281	205
총교역액	487	426	371	292	219	242	335	255

\* 자료 : 무역협회

#### 대(對)몽골 주요 수출국과 시장 점유율(% , 2018년 기준)

- ① 중국(33.5), ② 러시아(29.1), ③ 일본(9.5), ④ 한국(4.5), ⑤ 미국(3.6), ⑥ 독일(2.9)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수출) 화물승용차 및 건설장비 수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
  - 화물승용차, 건설 중장비, 연초유, 윤활유, 화장품 등 5대 품목이 몽골 수출의 34.5%를 차지
- (수입) 캐시미어 등 의류 및 광물제품 수입에 높은 비중
  - 편직제의류, 기타 금속광물, 식물제의류, 기타 비금속광물, 의류악세서리 등 5대 품목이 91.2% 차지

### 대(對)몽골 5대 교역품목('19.9월)

수출품목	금액(백만 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 불)	비중(%)
화물자동차	21	9.3	편직제의류	9.9	39.5
건설중장비	19	7.1	기타금속광물	8.8	35.3
연초류	17	7.2	직물제의류	1.7	6.7
윤활유	13	5.5	기타비금속광물	1.7	6.7
화장품	12	5.3	의류악세서리	7.7	3.1
전 체	230.4	100.0	전 체	25.0	100.0

\* MTI 4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한국의 대(對)몽골 투자진출

- 2019년 2분기 기준 대(對)몽골 한국투자 누계액은 신고기준으로 약 9억 4,306만 달러, 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4억 7,901만 달러
  -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47%) 진출이 가장 활발하며, 다음으로 개인(43%), 대기업 (7%)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중소기업(5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대기업(33%) 투자 실적이 많은 것으로 집계

### 연도별 대(對)몽골 투자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연도	신규법인수	신고건수	신고금액	실 투자금액	
1994 ~ 2005	82	154	56,095	28,630	
2006	26	53	44,129	19,703	
2007	55	105	50,731	44,433	
2008	79	196	165,201	60,629	
2009	46	115	123,017	28,285	
2010	45	115	58,447	27,185	
2011	53	136	59,987	44,123	
2012	46	136	96,591	55,979	
2013	33	121	61,249	49,036	
2014	46	111	43,402	32,100	
2015	31	113	83,279	39,141	
2016	16	72	28,870	10,585	
2017	33	79	21,346	13,569	
2018	25	83	43,608	22,685	
분야	도매 및 소매업	9	31	13,993	10,947
	광업	0	15	17,228	4,261
	건설업	1	5	5,000	1,326
	금융 및 보험업	1	6	1,221	1,2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4	816	1,015
	부동산업	2	4	995	992

정보통신업	2	3	400	64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4	2,199	587
숙박 및 음식점업	3	4	356	5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2	500	50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1	500	387
농업, 임업 및 어업	1	2	200	200
운수 및 창고업	0	1	100	4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1	100	30
제조업	0	0	0	21
2019	11	21	7,115	2,933
누계	627	1,610	943,067	479,015

주 : 2019년 8월 기준 확인 가능 최신 자료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

- 투자 분야는 누적금액 기준으로 광업(27%), 도매 및 소매업(18%), 건설업(12%), 부동산 및 임대업(11%)의 순
- 광업이 신고액, 송금 횟수, 투자금액 면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이며, 신고 건수 및 신규법인 수에서는 도소매업이 상위권 기록

### 업종별 대(對)몽골 투자 현황

(단위 : 천 달러, %)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액	송금 횟수	투자금액	비중
광업	284	48	318,724	451	128,818	26.9
도매 및 소매업	375	157	151,283	450	88,255	18.4
건설업	176	78	101,593	249	58,502	12.2
부동산업	119	39	102,622	217	53,413	11.1
정보통신업	62	24	45,545	73	29,615	6.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7	11	43,762	95	24,998	5.2
제조업	161	90	65,047	215	22,933	4.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	46	23,511	95	18,628	3.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31	24,034	104	14,240	3.0
운수 및 창고업	51	17	18,653	79	14,052	2.9
숙박 및 음식점업	29	21	11,397	45	9,029	1.9
농업, 임업, 어업	57	17	10,782	82	5,225	1.1
금융 및 보험업	22	10	3,781	23	3,412	0.7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8	3	4,791	11	3,111	0.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2	11	12,459	50	2,759	0.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6	1,620	41	850	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0	11	2,683	19	676	0.14
교육 서비스업	6	4	370	6	370	0.07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3	400	4	130	0.02
합계	1,610	627	943,067	2,309	479,015	100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

### 대(對)몽골 주요 투자국

- 2018년 기준 대(對)몽골 주요 투자국은 캐나다(32.0%), 중국(22.9%), 싱가포르(7.8%), 룩셈부르크(6.3%), 홍콩(4.9%), 일본(4.2%), 미국(3.6%), 네덜란드(3.2%)의 순이고, 한국은 2.1%로 9위, 러시아는 0.6%로 17위를 차지

### 시사점

- **(교역)** 한국의 대(對)몽골 수출품목은 화물자동차, 화장품 등 소비재, 의약품 등이며 한국의 대(對)몽골 수입품목은 광물, 의류, 양모 등으로 품목 구성이 단조로움
  - 전통적인 수출품목 외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수입의 경우도 양국 간 상호보완적 교역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품목의 수입확대가 필요
- **(투자)** 에너지, 건설 인프라 등 대기업의 수주에 따른 투자 확대, 서비스분야 투자진출의 확대가 필요하며, 양국 간 경험 확대에 따른 상호투자규모 확대 필요

### Ⅲ. 양국 협력방향과 비전

#### 몽골의 경제발전 전략

- (몽골 지속가능 개발 비전 2030) 경제구조 다변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2016년 2월)
  - (산업다각화)
    - 지나친 광업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수입대체 제조업 육성 등 경제구조 다변화 정책 추진
    - 정부와 산학 협력 촉진, 선진기술과 장비 도입, 광업, 농업 위주에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전환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 몽골 '국가개발전략 2030'에서 농업, 섬유, 식품, 건설, 구리·석탄, 석유화학, 철강, 관광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몽골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에 20%, 2030년에는 30%로 증대(2017년 현재 약 10%)
    -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유치를 위해 법적 환경 및 세제 개선, 금융시스템 구축 등 지원 강화 (2015년 6월 국회결의)
-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 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 이탈 대응 및 경제회복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신투자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 중
    - \* 2012년 6월 출범한 몽골 정부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외국인 투자관리법을 급조, 이후 외국인 투자 환경 급랭
    - \* 이에 동 법을 폐지하고 2013년 10월 투자안전성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신투자법'을 제정하였으나 FDI 이탈은 여전히 지속
  - 몽골 정부는 몽골 내 자원민족주의 및 배타적 반외국인 정서 등이 FDI 이탈의 한 원인임을 인식, 범국민 인식전환 활동도 전개

#### 몽골의 지속가능개발 비전 2030 10대 목표 및 핵심지표

[목표1] 1인당 GNI 17,500달러 달성/ 중·고소득국 지위 진입	[목표6]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 및 장수에 기여/ 기대수명 78세로 향상
[목표2] 2016~2030 경제성장률 6.6% 유지	[목표7] 인간개발지수(HDI) 세계 70위 진입
[목표3]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목표8] 생태계 균형 보존/녹색경제지수(GEI) 세계 30위 진입
[목표4] 소득 불균형 감소 및 국민의 80% 중산층 또는 상위 중산층 진입	[목표9] 기업환경지수 세계 40위 진입 글로벌경쟁력지수 세계 70위 진입
[목표5] 초등교육 및 직업교육 등록률 100% 달성 및 평생교육체계 구축	[목표10] 전문적, 안정적 참여 거버넌스 구축/ 개발정책 이행 위한 부패 척결

#	지표	측정단위	2014	2030
1	연평균 경제 성장률	%	7.8	6.6
2	1인당 국민 총소득	USD	4,166	17,500
3	인간개발지수	순위	90	70
4	기대수명	년	69.57	78
5	빈곤율	%	21.6	0
6	세계경쟁력지수	순위	104	70
7	기업환경지수	순위	56	40
8	환경성과지수	순위	111	90
9	경제활동인구의 사회보장보험비율	%	84.4	99.0
10	지니계수	점	0.365	0.30
11	1,000명당 영아사망비	비율	15.1	8.0
12	100,000명당 모성사망비	비율	30.6	15.0
13	고등학교 한 반의 학생 수(국가 평균)	수	27.3	20.0
14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증한 국제무역을 위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	0.0	60.0
15	사막화 면적	%	78.2	60
16	특별 보호 구역	%	17.4	30
17	몽골 여행 외국인 관광객 수	백만명	0.392	2.0
18	안정적인 전기 사용 세대 점유율	%	89.0	100.0
19	총 수출 중 가공 부문 수출 비중	%	17.0	50.0
20	국내생산을 통한 주요 연료제품 점유율	%	0.0	50.0

## 한국의 대(對)몽골 협력 추진 방향

### ○ 신(新)북방정책 관련 유라시아 거점국가로서의 가치 인식

- 내륙국가이자 소규모 경제인 몽골의 경제적 가치를 과소평가해 왔으나 신북방정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 인식 필요
- 유라시아 중심지역에 위치한 몽골을 관련 국가들과 에너지·자원인프라, 교통·물류, 비즈니스 협력 등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활용 필요

\* 중·러·한·일 연계 동북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 유라시아 신시장 개척 등 교두보 역할 부여

### ○ 지역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기업별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

- (주력업종) 에너지, 자원개발, 인프라건설 등 국책사업 및 조달사업의 경우 프로젝트화하여 공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참여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필요
- (유망업종) 시장규모가 작은 몽골 특성상 소비재, 유통, 프랜차이즈 등 유망업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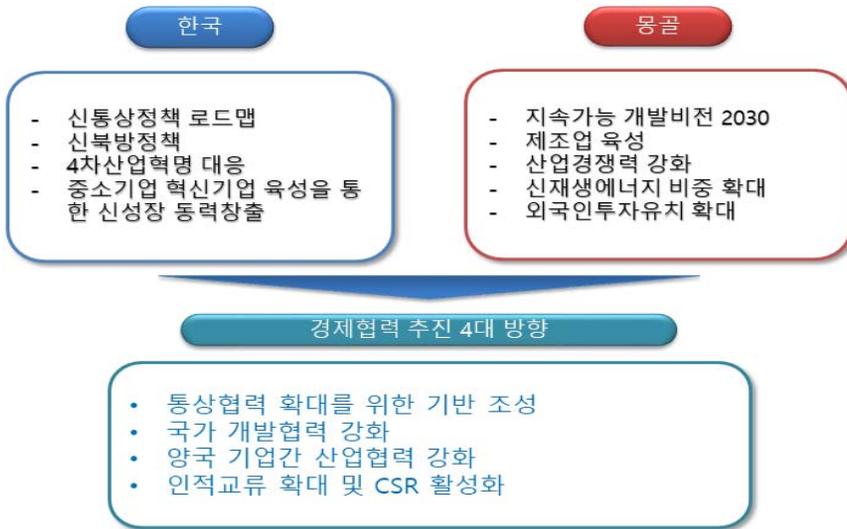
### ○ 한·몽 EPA 체결 추진으로 우리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 생필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몽골에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한·몽 EPA 체결 추진
- 몽골은 이웃국가인 중국(최대 수출시장)과 러시아(에너지 공급원)에 치우친 국제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등과 교역 강화 노력 중
  - \* (몽골의 EPA 추진 현황) 15년 2월 일본과 EPA 체결(몽골 최초의 FTA), '16년 7월 한·몽 EPA 공동연구 MOU 체결, '17.9월 한·몽 EPA 공동연구 완료
- 한·몽 EPA 공동연구 결과, 실질 GDP, 수출입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교역·투자 증대를 위한 핵심기반으로 접근 필요
  - \* 몽골 대비 한국의 경제적 효과가 낮으나(실질 GDP 한국 0.0022% vs. 몽골 0.1729% 개선) 유라시아 거점인 몽골과의 무역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적극 추진 필요

## 한·몽 협력 비전

몽골의 장기 발전계획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연계한 양국 간 경제협력 방향을 설정

\*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협력비전으로 정치, 외교, 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관전 반영 필요



### 한·몽 상호 보완적 동반성장을 위한 중점 협력분야

#### < 통상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

- 양국간 FTA체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한몽 EPA 추진으로 수출확대
- ODA/EDCF/KSP를 활용한 산업정책한류 확산

#### < 국가 개발협력 강화 >

- [교육] 교육환경 개선과 접근성 증대
- [보건] 물관리 및 보건위생 관리역량 강화
- [공공행정] 공공행정 분야 지원을 통한 투명성, 효율성 제고
- [교통] 운송, 물류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관리역량 강화

#### < 양국기업간 산업협력 강화 >

- 제약 의료산업 협력 확대
- 건설/인프라/프로젝트 협력 확대
- 소비자/유통산업 협력 확대
- 광산산업 협력확대
- 에너지/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

#### < 인적교류 확대 및 CSR 활성화 >

- 문화/관광/인적교류 확대
-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 저변 확산
-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CSR 추진 강화
- 지속가능한 가치 및 산업별 가치사슬 구축

## IV. 협력 주체별 과제

### 가. [G2G] 통상협력 확대 기반 마련

#### ① 양국 FTA 체결 등 통상·제도적 기반 마련

- 한·몽 EPA 체결 추진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 생필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몽골에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한·몽 EPA 체결 추진 필요
  - 몽골은 이웃국가인 중국(최대 수출시장)과 러시아(에너지 공급원)에 치우친 국제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등과 교역 강화 노력 중
    - \* (몽골의 EPA 추진 현황) 15년 2월 일본과 EPA 체결(몽골 최초의 FTA)
    - \*\* 일본은 자동차시장 진출과 함께 에너지자원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대(對)몽골 투자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EPA 체결('15.2월)
    - \*\* 자동차부품 관세 면제, 계약 준수 및 분쟁해결, 로열티 등 정부 개입 금지 등
    - \*\* '16.6.7 발효된 몽-일 EPA에 따르면 몽골 제품 5,700개, 일본 제품 9,300개 제품이 4단계에 걸쳐 단계적 철폐되며, 발효와 동시에 우선 3,423개 제품 관세가 철폐(일본산 3년 이하 중고차 관세율 5% 발효 즉시 철폐)
  - 한·몽 EPA 공동연구 결과, 실질 GDP, 수출입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교역·투자 증대를 위한 핵심기반으로 접근 필요
    - \* 몽골 대비 한국의 경제적 효과가 낮으나(실질 GDP 한국 0.0022% vs. 몽골 0.1729% 개선) 유라시아 거점인 몽골과의 무역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적극 추진 필요

#### 한-몽 EPA 추진경과

- '11.3월 몽골 총리 방한 시 FTA 체결을 위한 양국 협력 제의
- '15.12월 우리 총리 방몽 시 몽골 측 부정적 국내여론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
- '16.5월 몽골 대통령 방한 시 정상회담에서 '한-몽 FTA 관련 협력' 언급
- '16.7월 우리 대통령 방몽 시 정상회담에서 한-몽 EPA 공동연구 추진 합의(MOU체결)
- '17.9월 한-몽 EPA 공동연구 완료

#### ② ODA / EDCF / KSP를 활용한 산업·정책 한류 확산

##### 【ODA】

- (지원현황) 한국은 몽골에 1987~2018년 동안 약 4억 6천 8백만 달러의 지원을 해왔으며, 이 중 무상은 약 3억 1,946만 달러, 유상은 1억 4,886만 달러에 달하고, 이는 전체 수원국 중 11위에 해당(무상원조 6위, 유상원조 16위)

## 연도별 ODA 지원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87~'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잠정	계
지원액	73.79	16.71	32.47	39.27	32.73	34.41	30.37	33.31	26.14	42.88	25.60	80.65	468.32
무상	38.38	15.68	13.90	29.02	32.64	34.41	30.37	32.78	26.14	20.85	20.75	24.54	319.46
유상	35.41	1.03	18.57	10.25	0.09	-	-	0.53	-	22.03	4.85	56.11	148.86

- (협력수요) 한국은 2011년부터 몽골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확대 중
  - 2016~2020년 대(對)몽골 국가협력전략(CPS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따라 선정한 4개 분야(교육, 물관리/보건위생, 공공행정, 교통) 중점 지원 계획
  - 2019년도에는 17개 시행기관(부처 미 지자체)이 38개 ODA 사업(558억 원 규모)을 시행할 예정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추진경과) 몽골의 요청에 따라 2011년 양국 간 기본약정 체결 후 2011~2015년간 총 3억 달러 지원에 합의했으나, ‘국립의료원 건립사업’ 이외 사업은 상당 기간 미추진
  - 2015년 동 약정을 3년간 연장하였음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지만, 2018년 한국은 기존의 미소진 금액 2억 달러에 5억 달러를 추가하여 총 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기로 결정
  - 2018년 1월 한-몽 총리회담에서 몽골의 후렐수흐 총리는 5억 달러의 EDCF 자금을 울란바토르시 대기오염 문제해결에 투입하겠다고 언급, 동 사업 관련 공공주택단지 건설, 국립환경연구소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F/S 진행 중

### 대(對)몽골 EDCF 지원 현황(2019.4월)

	사업명	연도	승인액	추진단계
			백만달러	
1	주사기공장 건설 사업	'92	5.2	종결
2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96	8.0	원리금회수
3	지방통신망 확장 사업	'99	14.3	원리금회수
4	정부통신망 현대화 사업	'99	5.3	원리금회수
5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보충용자	'99	0.9	원리금회수
6	울란바타르 지능형교통망 사업	'06	12.8	원리금회수
7	긴급구난정보망 구축 사업	'06	13.5	원리금회수
8	국립의료원 건립 사업	'11	55.5	자금지출
9	시외버스 교체 사업	'16	2.8	자금지출
10	국제버스 교체 사업	'16	2.8	자금지출
11	시외버스 교체 사업(2차)	'16	25.00	컨설팅트 구매
12	ICT 통합교실 구축 사업	'16	19.6	본구매
13	법집행대학 교육기자재 공급 사업	'17	2.0	본구매
14	10개 아이막 지역난방시스템 개선 사업	'18	148.7	차관계약 체결
15	울란바토르 대기 개선 프로그램 차관	'18	60.0	차관계약 체결
16	국가기록원 현대화 사업	'18	19.0	차관계약 체결
17	위치추적 중앙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19	14.7	정부지원방침 승인
총 17건			410.2	

**【KSP】**

- (지원현황) 한국은 몽골에 ‘경제발전 경험공유 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몽골에는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음
  - 몽골은 2010년 일반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최초 사업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전략과 예금보험제도’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중점지원국으로 선정
  - 주로 한국의 경제정책 수립, 경제위기 관리 등 앞선 경험에 대한 정책자문 및 컨설팅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최근 에너지, 물류, 환경 등 각 산업분야로 지원범위가 확산되는 추세

**대(對)몽골 KSP 사업 추진 현황**

연도	사업명	예산 (억원)	사업유형	구분
2019-2020	몽골 경제위기 관리방안	4.2	개발컨설팅	양자무상
2019-2020	몽골 국부펀드 설립 및 자산관리 운영제도 발전방안	3.8	개발컨설팅	양자무상
2018-2019	몽골 거시경제정책 결정자 역량강화사업	3.9	개발컨설팅	양자무상
2017-2018	몽골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방안	1.9	개발컨설팅	양자무상
2017-2018	몽골 주파수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방안	3.3	개발컨설팅	양자무상
2013	몽골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3.1	개발컨설팅	양자무상
2012	몽골의 지속가능 성장기조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 무역, 거시 및 공공정책부문	4.1	개발컨설팅	양자무상
2011	몽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3.7	개발컨설팅	양자무상
2010	몽골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전략과 예금보험제도	3.5	개발컨설팅	양자무상

- (향후 제언) K패키지 실행력 제고 및 주요 분야별로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 하에 ODA/EDCF/KSP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기관 간 협의체 운영 등 검토 필요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정부(대사관), 유관기관(KOICA, 한국수출입은행, KOTRA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 현지정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마련

**나. [B2B] 산업별 기업 간 협력**

**① 제약·의료산업 협력**

- (몽골 수요)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하여 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고 자국 제약사 경쟁력 저조로 의약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
  - 몽골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낙후로 국제 원조 자금(ADB, JICA, EDCF 등)을 통해 신규 병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들은 비교적 현대식 시설을 갖춘 사설병원을 설립, 병원 비즈니스에 진출 중

\* GrandMed Hospital, InterMed Hospital 등 사설병원들은 한국 병원들과 협력하여 한국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

- 광업 중심 경제구조 개선과 전략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제약 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으나 부족한 기술력과 자본으로 난항

\* 몽골은 '국가개발계획 2030'에 따라 광업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조업 육성을 꾀하고 있으나, 지리적 한계와 기술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 강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의료 서비스 중심지와 몽골 환자들의 한국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선호**

- 몽골인들의 한국 의료서비스 선호는 매우 높아 2017년 의료관광객 수는 1만 4천여 명이며,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 1위 기록

- 몽골 수입 의약품 시장은 2017년 7,706만 달러에서 2018년 9,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한국 의약품 수입이 대폭 증가해 의약품 수입 대상국 중 7위에서 4위로 도약

\* 2016(296만 달러) → 2017(458만 달러) → 2018(661만 달러)

**최근 3년간 한국 의약품 수입 규모 및 동향**

(단위 : 천 달러, %)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965	4,579	6,606	4.1	5.9	6.9	47.4

\* 자료 : 몽골 관세청

○ **(협력 방안) 공동 R&D 개발, 생산 공장 합작 설립, 병원 설립 등을 통한 상호 이익 구조 구축**

- 단순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 기술이전, 공장 설립 등의 합작 관계 설정 고려필요
-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정기적인 인적 교류나 의료진 파견 을 희망하는 수요 다대
- 산부인과, 암, 척추전문 병원 등 난치병 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성화 병원 진출 유망

**한국기업, 기관 협력사례**

단국대학교는 한국 의료기업 덴티움과 제노스, 몽골 제약사 MONOS와의 학연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몽골 우수 의약 원재료(야생화, 약초 등)에 관한 공동 연구와 학사 및 석/박사 교류 등의 인적 교류를 시행 중이며, 연구 개발을 통한 사업화에도 노력을 쏟고 있음

**2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 **(몽골 수요) 몽골 정부,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동북아 전력망' 추진을 통한 교통·물류·전력 인프라 구축 노력**

- 몽골 정부는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러시아와 철도, 도로, 전력망, 송유·가스관 등을 연결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추진
- 몽골 정부는 동북아 전력망 연계 실현을 위한 정부 간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는 협정 체결을 주변국에 제안

- (한국 강점) 무상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한국 정부 자금 활용 프로젝트 다수 시행
  - 우리 정부는 1987년부터 2018년간 3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지원했으며, 2019년도에는 17개 시행기관(부처 및 지자체)이 38개 ODA 사업(558억 원 규모)을 시행할 예정
  - 몽골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우리정부는 7억 달러 규모의 EDCF 자금 지원을 약속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

### 대(對)몽골 EDCF 지원 현황

(단위 : 백만불)

번호	사업명	연도	승인액	추진단계
1	주사기공장 건설 사업	'92	5.2	종결
2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96	8.0	원리금회수
3	지방통신망 확장 사업	'99	14.3	원리금회수
4	정부통신망 현대화 사업	'99	5.3	원리금회수
5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보충용자	'99	0.9	원리금회수
6	울란바타르 지능형교통망 사업	'06	12.8	원리금회수
7	긴급난민정보망 구축 사업	'06	13.5	원리금회수
8	국립의료원 건립 사업	'11	55.5	자금지출
9	시외버스 교체 사업	'16	2.8	자금지출
10	국제버스 교체 사업	'16	2.8	자금지출
11	시외버스 교체 사업(2차)	'16	25.00	컨설턴트 구매
12	ICT 통합교실 구축 사업	'16	19.6	본구매
13	법집행대학 교육기자재 공급 사업	'17	2.0	본구매
14	10개 아이막 지역난방시스템 개선 사업	'18	148.7	차관계약 체결
15	울란바타르 대기개선 프로그램 차관	'18	60.0	차관계약 체결
16	국가기록원 현대화 사업	'18	19.0	차관계약 체결
17	위치추적 중앙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19	14.7	정부지원방침 승인
총 17건			410.2	

- (협력 방안) 무상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한 동반 진출
  - 무상원조(ODA)의 경우 국내입찰을 통하여 사업수주가 진행되므로 국내 관련 산업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국내 기관과의 동반 진출을 통한 사업 참여 검토

협력 프레임	한-몽 정부 간 원조 협약 발주 프로젝트 국내기업 수주
1단계	(G2G) 무상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프로젝트 발주
2단계	(B2B) 국내기관과의 동반 진출 또는 개별 기업 프로젝트 수주

#### 진출 사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몽골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게르촌 이주 프로젝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타당성 조사 중이며 국내 건축사무소, 법무법인 등 동반 사업 수행 중

### ③ 소비재 유통사업

- (몽골 수요)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공산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계 프랜차이즈 수요 급증
  - 2016년까지 외국계 유통 프랜차이즈 진출 사례가 없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계, E-mart, 러시아계, Absolute 진출
  - 외국계 편의점의 경우 한국의 CU, 미국의 Circle K가 진출, 시장 경쟁 중에 있음

#### 최근 5년간 몽골 도소매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GDP 대비 도소매업 점유율(%)	16.9	16.4	16.1	15.8	16.5
매출액	9,340.2	8,979.5	7,819.9	8,196.9	8,757.3

- (한국 강점) 한류 및 유학생, 근로자 등 한국 체류 경험자 다수로 몽골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 유통체인, 서비스 친숙
  - 2018년 한국 방문 몽골인은 113,864명으로 320만 몽골 인구 대비 적지 않은 규모이며, 근로자 수는 4만여 명으로 한국 상품과 유통체인, 서비스에 익숙하며 귀국 후에도 한국 소비재 선호
- (협력 방안) 직접진출보다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진출 유리
  - 복잡한 현지 허가와 통관 등의 영향으로 한국기업 직접진출보다는 현지 유통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지기업과의 합작이 초반 진출에 용이함

**한국기업 진출 사례**

- ① (E-mart) 2016년 진출 후 2019년 현재 3호점 개설, 이마트가 현지 파트너사에 브랜드와 점포운영 컨설팅, 상품 등을 수출하고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방식
- ② (CU) 2018년 현지 파트너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몽골 시장에 진출했으며, 2019년 현재 매장을 51개까지 확대 운영 중

**4] 광업**

- (몽골 수요) 광업은 몽골 GDP의 23%, 수출의 84%를 차지하는 몽골 경제의 추진 동력이며 2017년부터 광산 개발 활기 회복
    - Oyu Tolgoi(동·금) 광산의 지하광산 개발, Tavan Tolgoi(석탄) 및 Gatsuurt(금광) 광산 개발, Tavan Tolgoi 화력발전소(450MW) 건설, 철도망 확장 사업 등이 우선 추진 중
    - 대(對)중국 광물 수출 비중은 전체의 89%로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해 전략광물의 제3국 수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
- \* 대(對)중국 수출 : 2017년 U\$52.6억(이 중 석탄 21.8억, 구리 16.1억)  
2018년 U\$54.9억(이 중 석탄 27.5억, 구리 20억)

**최근 5년간 몽골 광산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GDP대비 광업 점유율(%)	17	17.6	20.7	24.1	24.3
산업생산 중 비중(%)	64.4	55.1	55.6	57.7	57.4
광물 전체 수출액	4,791.5	3,678.2	3,484	4,933.7	6,070.3

\* 자료 : 몽골 통계청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자원명	연도별 생산량				비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석탄(천톤)	24,140	35,096	49,480	51,401	• 매장량(1,750억톤) 기준 세계 제4위
동정광(천톤)	1,335	1,445	1,317	1,311	• 매장량(5,500만톤) 기준 세계 제2위 • 세계 동정광의 0.8% 공급 • 몽골 수출액의 30.8%
몰리브덴(천톤)	5.2	5.2	5.7	5.5	• 매장량(3만톤) 기준 세계 제11위 • 생산 세계 제9위
형석정광(천톤)	230	202	164	182	• 매장량(1,200만톤) 기준 세계 제3위 • 생산 세계 제3위
원유(천배럴)	8,769	8,250	7,624	6,388	• 생산원유는 모두 중국으로 수출 • 탐사확대 추진 중 • 매장량 45억 배럴
철광석(천톤)	6,173	7,146	11,370	6,225	• 추정 매장량 15억톤
금(천kg)	14.5	18.4	19.8	20.6	• 몽골 수출액의 7.1% • 매장량 3,000톤

\* 자료 : 몽골 통계청

- (한국 수요) 한국은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 중이나, 전략적 협력국가가 없는 상황으로 희토류 등 전략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
  -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하여 국가 기간 산업의 기반이자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소재·부품 산업 원료인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 노력 필요
- (협력 방안)
  - 희토류와 같은 전략 자원 공동 개발을 통하여 동북아 주변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가능
    - \* 몽골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6%로 추정되며, 日정부의 경우 중국과의 자원 전쟁 이후 몽골 내 희토류 광산을 몽골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완료
  - 국토 대부분이 광산 지역이나 무분별한 광산 개발에 따른 국토 황폐화와 환경 관심 증가에 따른 광해관리 분야 협력 가능
    - \* 한국 광해관리공단은 몽골 내 광해관리 분야의 독보적 입지 확보

#### 한국기업 진출 사례

##### 광산 개발 및 광물 자원 물류 사업 추진

- ① (AGM Mining) 2009년부터 구리, 금 등 광물 탐사 및 개발 추진
- ② (삼성물산) 1992년부터 구리, 금 등 광물 자원 물류 사업 추진, 구리정광 중국 연간 10만 톤 규모 수출

## 다. [B2G] 정부대상 협력수요 개발

### ① 에너지·인프라 개발협력

- (몽골 수요) 전력수요 대비 공급능력 부족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하며, 발전소 노후화 및 높은 전력 손실 문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총 발전용량은 약 1,995MW 수준이며, 전력생산의 약 98%를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전력수요 대비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정전 등 전력 수급 불안정
    - \* 중국, 러시아로부터 총 전력수요의 22.7%를 수입(2018년 기준)
  - 신도시 및 광산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 기존 발전소 노후화(40~50년) 등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로, 2030년까지 약 4,000MW 신규 전력 공급 필요
  -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송전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기술 부족,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약 27%에 달하는 전력손실이 발생 중
- (신재생에너지) 몽골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몽골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국가 전력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지역의 전력 공급수단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고려
  - 태양 에너지의 경우 몽골은 1년 중 270일이 맑으며, 하루에 미터당 4.3~4.7kWh 이상 생산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2019년 9월 기준 태양광 발전소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재생 에너지 생산의 15.5%를 태양광 발전소가 공급

- 풍력의 경우 전체 영토의 10%가 풍력 발전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풍밀도는 400~600W/m<sup>2</sup>로 2019년 9월 기준 풍력 발전소 4개가 가동 중이고, 총 재생에너지 생산의 71.5%를 생산하는 것으로 집계됨
- 수력의 경우 이론적으로 6.2GW 생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8개의 수력 발전소가 총 6,185천kWh 전력을 생산해 총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13%를 차지
- (협력방안) 기존 에너지·자원 부문의 협력 부문에서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위해서 양자 간 협력 메커니즘 확립 필요
  - 에너지·자원 부문의 협의기구를 통해 협력 과제를 설정하고, 보다 다양한 양국의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함
  - 양국의 에너지·자원 부문과 관련한 정책, 제도,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논의하는 등 협의기구 필요
    - \* 현재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KEEI)과 몽골 에너지경제연구원(MEEI) 등 정부연구소 간 협력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향후 진출방안)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중국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방안도 유망
  - 중국은 몽골 광산업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자, 몽골 전체 자원 수출의 96%를 수입하는 주요 독점자임
  - 몽골은 내륙국가인 관계로 현지에서 개발한 광물자원을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 영토 경유가 불가피하여, 수송로 확보 차원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
  -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몽골 자원개발 참여를 위해서는 중국의 대(對)몽골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지리적 위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라. [국민] 교류저변 확대와 상생기반 마련

### ① 문화·관광·인적 교류 확대

◆ 한류 확산 분위기를 활용, 다양한 문화·관광 교류 등 인적 교류를 증대하여 양국 간 협력의 저변 확산

- (현황) 몽골은 한류가 이미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몽골의 방한 의료관광객 증가 등 인적 교류 확대 추세
  - 몽골 내 한류는 성숙화 단계를 넘어 대중화 단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방한 몽골인 수가 연간 10만 명을 넘어섰고, 유학, 산업연수, 관광 등 분야도 확산되고 있어 한국 제품의 시장진출에 긍정적인 역할
  - 방몽 한국인 수도 2015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역대 최대인 8만 4천 명에 달했고, 2019년 7월 아시아나 항공 취항과 함께 양국 간 항공편이 증편되면서 양국 간 관광객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연도별 인적 교류 현황

구분(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방한 몽골인 (증가율)	61,116 (27.3)	63,740 (4.3)	60,821 (-4.6)	77,918 (28.1)	79,165 (1.6)	103,916 (31.3)	113,864 (9.6)
방몽 한국인 (증가율)	44,360 (0.8)	45,178 (1.8)	45,476 (0.6)	47,213 (3.8)	57,587 (21.9)	74,921 (30.1)	84,184 (12.4)

\* 자료 : 한국관광공사, 몽골 출입국통계

- (추진방향)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 등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발전적 관계 정립
  - 양국 간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해 한국 문화원 설립, 효과적 ODA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필요
    - \* 중국, 일본 등은 ODA를 통해 체육관 건설, 교량 및 공항 건설 등과 같이 대(對)몽골 지원에 있어서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를 완료함으로써 홍보 효과 극대화
  - 2020년 ODA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몽골 관광교육센터' 설립 및 관광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통해 몽골의 관광역량 강화 지원
    - \* 몽골 환경관광부는 관광 산업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초 한국관광공사를 벤치마킹하여 몽골관광공사(MNTO) 설립
  - 특히 열악한 몽골의 의료 환경으로 인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몽골인의 의료 관광 및 비즈니스 관광 등 고부가가치 수요 발굴
  - CSR, 봉사활동 등 기업·대학·청년·학술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상호이해 증진 및 인식제고

## ② CSR 활성화

- (현황) 한국기업은 1990년대 몽골 진출 이래 다양한 CSR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 활동과 기업 이미지 고양 노력 지속
  - 신흥국인 몽골의 특성을 반영해 방풍림 조성, 게르 및 난로 기증,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중증 환자 치료 지원 등의 사업이 시행
  -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CSR 사업과 공공기관(KOICA, KOTRA 등)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는 CSR 사업 유형으로 구분

### 몽골진출 한국기업 CSR 사업 현황

사업명(시기)	내용	기업
몽골 스포츠 발전을 위한 양서 보급(2001~)	몽골 생활스포츠 활성화, 청소년 미래를 위한 양서 번역·출판·보급	서울그룹
몽골 환경보호 (2015~)	테를지 국립공원 환경정화	KPMG
도시형 방풍림 조성 (2004~)	바가노르시 외곽 도시형 방풍림(대한항공 숲) 조성	대한항공
몽골인 근로자 자녀초청 투어(2017~)	몽골 근로자 자녀의 한국방문, 관광투어 등	에어부산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전달 및 취업지원(2010~)	학업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및 취업기회 제공	EZCON LLC
고르왕 테스숨 나무심기 (2015~)	우문고비 아이막 고르왕 테스숨에 나무심기 프로젝트	AGM Mining LLC
몽골 전통계르 및 난로기증(2017~)	비양주르구 사회복지센터와 협력해 저소득층에게 몽골전통가옥 계르 및 난로 기증	팔도
중증환자 치료비 지원 (2004~)	저소득층 아동 및 무의탁노인 생활지원과 중증환자 치료비 지원	한몽법률유한책임회사
공동체 숲 조성 및 병원시설개보수(2014~)	어기노르지역 사막화방지 공동체 숲 조성 줌모드 병원시설 개보수, 지역주민 의료보건교육	삼성물산
노후전기설비 개·보수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2010~)	고아원 시설개선 기부금 노후 전기설비 개보수 및 태양광 설비 설치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공기관 참가형 CSR의 경우 주로 해외마케팅 활동과 연계, 자사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고 잠재 바이어나 소비자가 체험하게 하는 제품·서비스 체험형과 유희·저활용 장비를 기증하고, 산업표준 및 운영경험을 전수하는 장비 이전형 사업 전개.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보유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여 현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기술학교형으로 사업 시행

### 2019년 KOTRA 글로벌 CSR 사업현황

사업명(시기)	내용	협업 기관
MICE 전문가양성 기술학교(2019.6월)	몽골의 MICE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한국관광공사
몽골 버스운송사업 운영 및 정비 기술학교(2019.6월)	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노하우 전수 버스 유지 보수 기술 전수	UBE모터스
광해 기술학교(2019.6월)	한국 우수 광해관리 기술 전파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인성 뇌질환 치료제 세미나(2019.6월)	몽골 전문의 대상으로 교육세미나 개최 치료제 기증을 통해 현지주민 건강증진 및 한국제품의 우수성 홍보	폴리파마상사
철도기술학교(2019.6월)	철도정책 및 PPP 사업개발 실무교육	한국철도시설공단
석유기술학교(2019.7월)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분석 기술교육	한국석유관리원
병원용 산소발생기 공장설립 및 운영기술학교(2019.10월)	지방병원에 산소발생기 공급을 위한 교육	클래스원

○ (추진방향)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CSR 추진 필요

- 현재 우리기업의 CSR 활동이 분야, 지역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마케팅 및 홍보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몽골 사회의 발전단계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이익추구형 단순 CSR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 기업별로 자사의 특징과 이미지에 맞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니즈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CSR 사업을 개발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천과 사후관리가 중요



## V. 향후 對몽골 K패키지 실행체계(안)

### ① 한·몽 공동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2019년 6월 28일, 제4차 한·몽 공동위원회 개최
  - 한·몽 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범정부적 협의체로 수교 25주년이었던 2015년 3월 2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회의 개최
    - \* 제1차(15.3.26), 제2차(16.3.24), 제3차(18.3.26)
  - 몽골은 장관급, 한국은 차관급으로 신북방정책 관련 협력 확대(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등), 철도·물류, 보건·교육·문화·스포츠교류,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 논의
- 분과위로 한·몽골 문화공동위, 교육과학기술공동위, 자원협력위, 농업협력위 운영
  - 문화공동위(국장급)는 1991년 발효한 한·몽골 문화협정에 따라 2001년 몽골에서 처음 개최('05년 2차, '11년 3차, '16년 4차)
  - 교육과학기술공동위(차관급)는 2010년 수교 20주년인 2010년에 처음 개최하였고, 2012년 3월 29일 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 자원협력위(국장급)는 1999년 1차 회의 개최 후 2011년 1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
  - 농업협력위(국장급)는 2004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으나, 2012년 5차 회의 이후 중단된 상태
- 국회 차원에서는 '한·몽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한·몽 경제협력위원회', '한·몽 경제포럼' 등 민간차원의 협의체도 운영
  - 한·몽 의원친선협회는 양국 국회의원들의 상호방문 및 교류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몽 협력포럼' 운영 중
  - 양국 상공회의소간 '한·몽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 ② 양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협력체제 가동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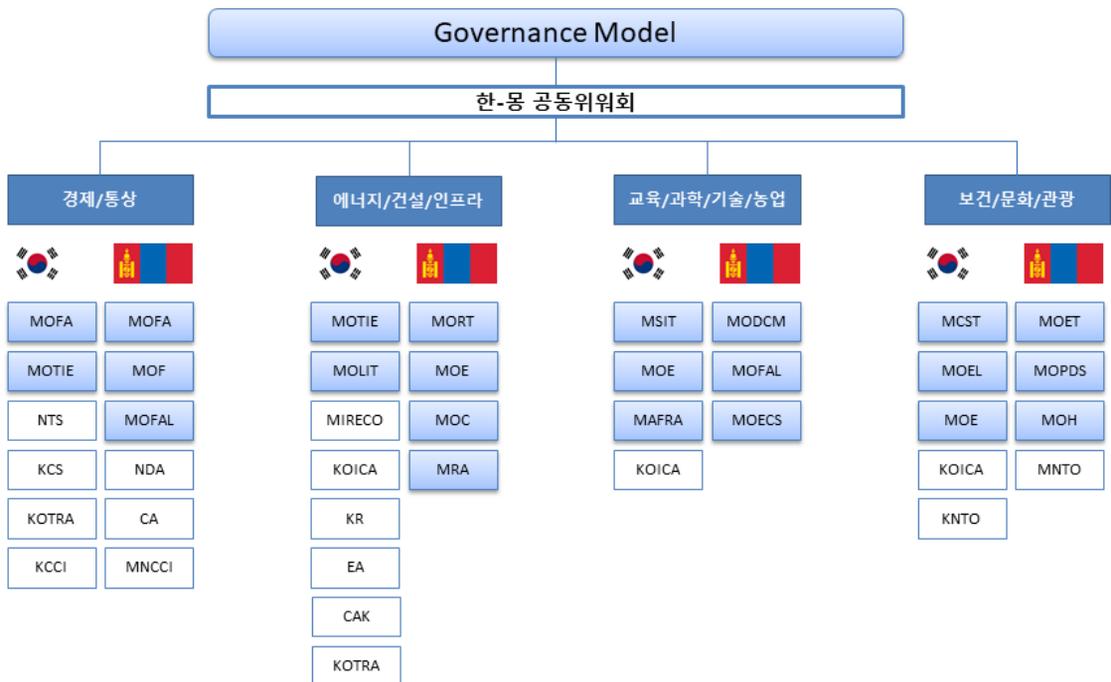
- 2014년 8월 한·몽 공동위원회 설치 합의로 협력 채널이 다양해졌으나, 기존 정부 간 협의체의 기능, 신규수요 발굴 등 양국 간 협력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로는 제한적
- 양국 간 협력의 성공을 위해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핵심 관건인데 정부 및 민간 협력의 생산적 구축, 유기적 연계와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 양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가동 중인 한·몽 공동위와 분과위를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 역할에 따라 협력수요를 매치하고 향후 협력범위 확대에 따라 추진체계 심화
  - 특히, 경제협력, 에너지 등 Sub분과를 만들어 분야별 과제 발굴, 이행사항 점검, 애로사항 해소 등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
    - \* 주몽골 정부·공공·민간 기관 중심의 한·몽 프로젝트 지원협의회(가칭) 구성

### 3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민간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숲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향후 한-몽골 정상 회담 시 K패키지 내용을 공동성명 형태 발표
  - \* 양국 정부 부처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MOU 체결 병행

### 4 협력 거버넌스 모델(예시)

- 한·몽 양국 간 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한·몽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과별로 구성 (예시) 한·몽 양국 간 협업 추진 거버넌스 모델



Korea members	Mongolia members
MOEF : Ministry of Economy & Finance	MOF : Ministry of Finance
MOFA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TIE :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E : Ministry of Energy
MCS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MECS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 Science
MOE : Ministry of Energy	MRT :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
MSIT : Ministry of Science & ICT	MOFAL :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Light Industry
MAFRA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 Rural Affairs	MOCUD : Ministry of Construction & urban development

ME : Ministry of Environment	MOH : Ministry of Health
MOLI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	MOMH : Ministry of Mines, Heavy Industry
KCS : Korea Customs Service	CA : Customs Agency
NTS : National Tax Service	GDT :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RDA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MNTO : Mongoli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KFS : Korea Forest Service	MNCCI : Mongolia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KOTRA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NDA : National Development Agency
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MIRECO : Mine Reclamation Corp.	
KNTO :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KR :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정원준	관장	울란바토르무역관	+976-7711-0140	waynech@kotra.or.kr

KOTRA자료 20-090

## 2020 국별 진출전략 **몽골**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36-1(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